

고려 팔만대장경 『法苑珠林』의 판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oodblocks of *Beopwonjurim*
in Koryeo Eighty Thousands Tripitaka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법원주림」 권82 초조본과
재조본의 교감 및 판각의 특징 |
| 2. 「법원주림(法苑珠林)」의 내용 및
구성 | 5. 결 론
<참고문헌> |
| 3. 「법원주림(法苑珠林)」의 판각 및
규모 | |

< 초 록 >

이 논문은 『법원주림(法苑珠林)』(K.1406) 100권 1,696판을 대상으로 판각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법원주림(法苑珠林)』의 내용 및 구성, 판각 및 규모, 권82의 초조본과 재조본의 교감 및 판각의 특징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법원주림』은 7세기경에 당의 도세가 편집한 100권 100편 668부의 항목으로 구성된 불교대백과사전이다. 유별분류체계는 천지(天地), 제왕(帝王), 인사제도(人事制度), 기타 1, 물(物), 기타 2로 나눌 수 있다. 『법원주림』의 초각은 함평 원년(998)에 운승(雲勝) 대사의 교감을 거쳐 인경원에서 간행하였다. 고려에서는 의천이 귀국 후 이듬해 선종 4년(1087)에 초조대장경의 판각이 일단락되자 이듬해에 법원주림을 간행할 것을 건의하여 송본을 번각하여 추조된 것이다. 현재 권82가 진존본으로 남아 있다. 재조본은 고려 고종 31년(1244)에 602명의 각수에 의해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100권 1,696판 3,392면(실제 판각면 3,322면)이 판각되었다. 『법원주림』 권82 초조본(A본)과 재조본(B본)을 대교한 결과, 전체적인 교감 내용을 보면 재조본은 초조본을 저본으로 하여, 초조본의 저본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약간의 교감을 가하고 있다. 판각은 초조본(A본)과 재조본(B본)의 14판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하면, 초조본은 송본의 번각인데 글씨가 넓적하고 크며 강한 필획을 사용하여 힘이 있어 보이지만 글씨가 커서 정연한 맛이 없다. 재조본은 초조본을 재번각한 것인데 번각이 매우 서툰고 초조본의 글자의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왜소하고 치졸한 느낌을 준다.

要語: 고려 팔만대장경, 『법원주림』, 각수

- * 본 연구는 2012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장려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2011년 서지학회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35-66에 실린 초안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2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11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udy *Beopwonjurim*(K.1406)'s 100 volumes and 1,696 woodblocks by proceeding in the following order: the *Beopwonjurim*'s content and layout, its woodblocks and scale, and the correction and woodblock characteristics in the 82nd volume of *Beopwonjurim*'s first and second editions. *Beopwonjurim* is a Buddhist encyclopedia comprising of 100 volumes, 100 parts and 668 sections edited by Dosae around the 7th century. Its classification system consists of heaven and earth, kings, the public figure system, others 1, things, others 2. The first carving of *Beopwonjurim* was issued in Ingyeonwon in the first year of Hampaeng(998) after Great Master Unseung's correction. In Goryeo, when the carving of the Koryeo First Tripitaka was concluded in the 4th year of Seonjong's reign(1087) and the year after Uicheon returned, he proposed that the *Beopwonjurim* be published the year after that. And so the Song Dynasty's carving was reprinted and engraved. At present, the 82nd volume remain in their entirety. 100 volumes, 1696 blocks and 3392 sides(3322 sides were actually engraved) of the second carving were done during the 31st year of Gojong's reign(1244) by 602 engravers in Daejangdogam and Bunsadogam. A comparison of the first Tripitaka (Model A) and the second Tripitaka (Model B) of *Beopwonjurim*'s 82nd volum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second version has the first model as a basis. The second edition faithfully follows the model of the first while adding a little proofreading. Comparing the 14 woodblocks of the first model and the second model, it can be concluded overall that the first edition is Song Bon's reprinting. The broad and large letters and powerful strokes in the first model give the impression of force; however, the largeness of the letters lacks an orderly impression. The second model recarved the first model as a basis. The carving is unskill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tters from the first model are hardly shown. Additionally their overall appearance is diminutive and crude.

Key words: the Koryeo Eighty Thousand Tripitaka, *Beopwonjurim*, Engravers

1. 서론

해인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려 팔만대장경 및 제경판의 디지털화는 국가 문화재청의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의 비전과 정책”의 비전인 기술·과학·인문학의 통섭, 새로운 감동의 창출, 실천적 방법론의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제 중 훼손 시 복원이 힘든 대상에 선정되어 2009년 5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9일까지 “팔만대장경 경판, 판전, 판가에 대한 DB 기초 작업/ DB 구축 /3차원 영상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그 일차사업을 마무리하였다. 그 사업의 핵심은 경판 DB 구축, 해인사 대장경판전 및 대장경판 보수공사 관련 자료들과 각종 연구서, 보고서 및 사진자료의 DB 구축, 영상자료의 DB 구축, 팔만대장경을 배가하고 있는 판가를 실측 조사한 CAD데이터의 구축 및 판가, 판전, 경판의 3D 영상 개발 등이다. 2010년 연차사업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보완, 2009년 마무리된 팔만대장경의 홈페이지의 개선, 시간관의 해제,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홈페이지의 구축, 시간관 6,007판의 해제 및 기 구축된 국간판 81,350판 DB와의 연계, 온라인 체험관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¹⁾

이 디지털화 사업은 궁극에는 디지털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공동표준과 호환성을 마련하고 자원을 공유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 창작자, 출판사, 관련 산업 및 유관 기관들 간의 노력과 협력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접근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²⁾

현재까지 고려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연구는 강화 경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지만, 불교학과 서지학 등 특정 분야에 치우쳐 각성사업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면밀하게 규명해 내지 못하였음이 지적되었고,³⁾ 새로운 발견 자료를 통해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면

1) 강순애,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 및 제경판의 디지털화와 대중화,”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1호(2011), 44.

2) 강순애,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 및 제경판의 디지털화와 대중화,”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1호(2011), 28.

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이 나왔지만 이 또한 자료의 정확성이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이 지적되었다.⁴⁾ 이러한 문헌학적 연구는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들이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성과를 축적하여 더욱 정밀해져야 하고, 디지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영역이 축적되어야 한다.

팔만대장경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모든 내용을 동시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교적 권질이 많은 경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례 연구들이 필요하다. 팔만대장경 중 권질이 많은 경전은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600권 8,003판,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200권 2,271판, 『대보적경(大寶積經)』 120권 1,465판, 『대지도론(大智度論)』 100권 1,537판,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100권 1,367판, 『법원주림(法苑珠林)』 100권 1,696판,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100권 1,091판, 『종경록(宗鏡錄)』 100권 835판의 8종이 100권 이상의 경이다. 이들 경전은 권수 및 판수가 많아서 자료에 대해 정확히 접근하지 않으면 서지적 연구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다.

필자는 팔만대장경판의 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에 관한 것과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 및 제경판의 디지털화와 대중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⁵⁾ 또한 팔만대장경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모든 내용을 동시에 파악하기가 힘들어 비교적 권질이 많은 경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먼저 <고려 팔만대장경 『유가사지론』의 판각과 봉안에 관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였다.⁶⁾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곽동화의 <고려 팔만대장경 『阿毘達磨大毘婆沙論』 판각에 관한 사례 연구>도 있다.⁷⁾

3)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景仁文化社, 2006), 2.

4)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각성사업에 대한 근대 100년의 연구사 쟁점,” 『석담논총』 44(2009), 136-138.

5) 강순애,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6(2010), 107-131.; 강순애,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 및 제경판의 디지털화와 대중화,”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1호(2011), 27-46.

6) 姜順愛, “고려 팔만대장경 『유가사지론』의 판각과 봉안에 관한 사례 연구,” 『소통과 인문학』 제10집(2010), 5-33.

따라서 본 연구는 「법원주림(法苑珠林)」(K.1406) 100권 1,696권을 대상으로 판각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법원주림(法苑珠林)」의 내용 및 구성, 판각 및 규모, 권82의 초조본과 재조본의 교감 및 판각의 특징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고려 팔만대장경의 서지적 및 불교사적 연구 분야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호관련 연구영역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2. 「법원주림(法苑珠林)」의 내용 및 구성

「법원주림(法苑珠林)」은 7세기 중엽에 당나라의 학승 도세(道世)가 40여 종의 각종 경률논기(經律論記)와 중국 찬술(撰述)의 위서(僞書)·잡서·도교(道敎)경전 등의 문헌 자료에 기초하여 불교의 세계관에서 불·법·승(佛法僧) 즉 삼보(三寶)에 관한 여러 문제를 광범하게, 내외의 전적을 인용하면서 해설한 불교 백과사전이다. 100권 100편 668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불교 사상 및 술어·법수·설화·현성들의 전기·불탑과 가람의 건립·불보살의 공양법 등의 항목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 항목마다 전거가 기록되어 있다.

각 항목의 구성은 먼저 술의부(述意部)에서 그 대의를 정의하며, 이하에서는 여러 부(部)로 해당 항목을 나누고 각각 전거를 들어서 설명한다. 또한 그 구성을 내용에 따라 나누면, 대의를 서술하는 술의부와 그에 해당하는 전거를 제시하고 평가한 인용부(引證部), 그리고 그 내용을 중국 역사에서 실례를 찾아 증험하는 감응연(感應緣)으로 되어 있다.

그중 감응연은 「법원주림」 100편 가운데 총 73편의 말미에 들어있는데, 수록 이야기의 주요 부분은 육조(六朝)시기부터 당대 초기까지 불교사상의 영향을

7) 郭東和, “고려 팔만대장경 「阿毘達磨大毘婆沙論」 판각에 관한 사례 연구,” 『서지학연구』 46(2010), 403-433.

받은 명상류(冥祥類) 지괴(志怪) 소설(小說)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서사 방식과 이야기 구조 등이 인도에서 유래된 불교문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이전의 중국 소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⁸⁾

『법원주립』의 편찬체제는 불교유서인 『경율이상(經律異相)』과 『제경요집(諸經要集)』의 분류 방식인 천(天), 지(地), 인(人), 사(事), 물(物)의 주제별 분류 방식의 영향을 받았고, 세부 내용의 분류는 인도의 불교 교리와 중국불교의식의 체계를 겹들여 17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주립』 100권의 유별 분류체계는 천지(天地), 제왕(帝王), 인사제도(人事制度), 기타 1, 물(物), 기타 2로 나눌 수 있다.

천지류는 1권-7권으로 겁량(劫量)편, 삼계(三界)편, 일월(日月)편, 육도(六道)편이며 우주세계의 형성과 궤멸하는 과정, 불교의 우주관, 우주세계, 천문관 및 지리적 환경 등을 다루고 있다.

제왕류는 8권-21권으로 불교의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제왕에 비유하여 분류한 것이다. 그중 8권-12권은 천불(千佛)편으로 불교의 창시자를 15부로 나누어 다루었다. 13권-21권의 경불(敬佛)편, 경법(敬法)편, 경승(敬僧)편, 치경(致敬)편, 복전(福田)편, 귀신(歸信)편은 불교의 삼보인 불법승을 다루었다.

인사제도류는 21권-59권으로 불교도가 지켜야 할 각종 규율과 의식을 인사제도에 비유하여 분류한 것이다. 그중 21권-27권의 사녀(士女)편, 입도(入道)편, 참괴(慚愧)편, 장도(獎導)편, 설청(說聽)편, 견해(見解)편, 숙명(宿命)편, 지성(至誠)편은 출가수행의 향도를 설명하였다. 28권-32권의 신이(神異)편, 감통(感通)편, 주지(住持)편, 잠둔(潛遁)편, 요괴(妖怪)편, 변화(變化)편, 면몽(眠夢)편은 수행 시의 영이한 현상과 기이한 생명 현상을 설명하였다. 33권-34권 사이의 흥복(興福)편, 섭념(攝念)편, 발원(發願)편에서는 불교도 수행의 도경(途經)을 기술하고 있다. 35권-42권 사이의 법복(法服)편, 연등(燃燈)편, 현번(懸幡)편, 화향(華香)편, 폐찬(呬讚)편, 경탑(敬塔)편, 가람(伽藍)편, 사리(舍利)편, 공양(供養)편, 수청(受請)편은 불교 특유의 의식을 다루었다. 43권-45권 사이의 윤왕(輪王)

8) 安正燾, “『法苑珠林』敍事結構研究 論文提要,” 『中國小說研究會報』, 제57호(2004), 83.

편, 군신(君臣)편, 남간(納諫)편은 증인도 제왕이 호법 시 갖추어야 할 덕성을 설명하였다. 45권-53권 사이의 심찰(審察)편, 사신(思愼)편, 검약(儉約)편, 징과(懲過)편, 화순(和順)편, 성욱(誠勗)편, 충효(忠孝)편, 불효(不孝)편, 보은(報恩)편, 배은(背恩)편, 선우(善友)편, 악우(惡友)편, 택교(擇交)편, 권속(眷屬)편, 교량(校量)편, 기변(機辨)편은 불교도가 갖추어야 할 품덕과 지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충효(忠孝), 불효(不孝), 보은(報恩), 배은(背恩), 선우(善友), 악우(惡友), 택교(擇交)는 중국의 윤리관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53권-59권 사이의 우당(愚戇)편, 사위(詐僞)편, 타만(惰慢)편, 파사(破邪)편, 부귀(富貴)편, 빈천(貧賤)편, 채부(債負)편, 쟁송(諍訟)편, 모방(謀謗)편은 피해야 할 악행과 인과를 설명하고 있다.

기타 1은 60권-63권의 주술(呪術)편, 제사(祭祀)편, 점상(占相)편, 기우(祈雨)편으로 진(晉)·당(唐) 사이 불교의 중국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서 일반 분류체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物)류는 63권-98권으로 불교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만물과 항목들을 분류한 것이다. 그중 63권-67권 사이의 원과(園果)편, 어렵(漁獵)편, 자비(慈悲)편, 방생(放生)편, 구역(救厄)편, 원고(怨苦)편은 만물에 대한 자비심을 설명한 것이다. 68권-72권의 업인(業因)편, 수보(受報)편, 죄복(罪福)편, 욕개(欲蓋)편, 사생(四生)편은 불교의 선행과 과보를 기술하였다. 72권-85권의 십사(十使)편, 십악(十惡)편, 육도(六度)편은 지악행선의 소집과 도덕규범을 기술하였다. 86권-94권 사이의 참회(懺悔)편, 수계(授戒)편, 파계(破戒)편, 수재(受齋)편, 파재(破齋)편, 상벌(賞罰)편, 이해(利害)편, 주육(酒肉)편, 예탁(穢濁)편은 불교도가 지켜야 할 생활 계율을 설명하였다. 95권-98권 사이의 병고(病苦)편, 사신(捨身)편, 송종(送終)편, 법멸(法滅)편은 병고와 세상을 떠나는 태도를 설명하였다

기타 2는 99권-100권인데, 99권은 잡요(雜要)편으로 전법(傳法)과 구법(求法)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100권은 전기(傳記)편으로 불교의 역사 및 번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일반 분류체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분류체계와 권·편차 및 내용을 <표 1>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⁹⁾

<표 1> 「법원주림(法苑珠林)」의 분류체계, 권·편차 및 내용

유별 분류 체계 1	내용 분류 체계 2	권차	편차	핵심내용
天地	1	1권-7권	劫量, 三界, 日月, 六道	불교의 우주관
帝王	2	8권-12권	千佛	불교의 창시자
	3	13권-21권	敬佛, 敬法, 敬僧, 致敬, 福田, 歸信	불교삼보(불, 법, 승)
人事制度	4	21권-27권	士女, 入道, 慚愧, 獎導, 說聽, 見解, 宿命, 至誠	출가 수행의 향도(向導)
	5	28권-32권	神異, 感通, 住持, 潛遁, 妖怪, 變化, 眠夢	수행 시의 영이한 현상 과 기이한 생명 현상
	6	33권-34권	興福, 攝念, 發願	불교도 수행의 도경(途徑)
	7	35권-42권	法服, 然(燃)燈, 懸幡, 華香, 唄讚, 敬塔, 伽藍, 舍利, 供養, 受請	불교 특유의 의식
	8	43권-45권	輪王, 君臣, 納諫	중인도 제왕이 호법 시 갖추어야 할 덕성
	9	45권-53권	審察, 思愼, 儉約, 懲過, 和順, 誠勵, 忠孝, 不孝, 報恩, 背恩, 善友, 惡友, 擇交, 眷屬, 校(較)量, 機辯	불교도가 갖추어야 할 품덕과 지혜
	10	53권-59권	愚戇, 詐僞, 憍慢, 破邪, 富貴, 貧賤, 債負, 爭訟, 謀訪	피해야 할 악행과 인과
기타 1	11	60권-63권	呪術, 祭祠, 占相, 祈雨	불교 특유의 기도(祈禱) 의식
物	12	63권-67권	園果, 漁獵, 慈悲, 放生, 救厄, 怨苦	만물에 대한 자비심
	13	68권-72권	業因, 受報, 罪福, 欲蓋, 四生	불교 선행과 과보
	14	72권-85권	十使, 十惡, 六度	지악행선(止惡行善)의 소급(消極)과 도덕규범
	15	86권-94권	懺悔, 受戒, 破戒, 受齋, 破齋, 賞罰, 利害, 酒肉, 穢濁	불교도가 지켜야 할 생활계율
	16	95권-98권	病苦, 捨身, 送終, 法滅	병고와 거세(去世)의 태도
기타 2	17	99권-100권	雜要, 傳記	잡요와 전기

9) 安正燠, “『法苑珠林』敍事結構研究,” (박사학위논문, 復旦大學 中文系, 2003), 60-64의 내용 및 한글대장경 『法苑珠林』(東國譯經院, 1985) 1권-5권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3. 「법원주림(法苑珠林)」의 판각 및 규모

「법원주림」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세기경 당의 도세가 편집한 불교대백과사전으로 초각은 함평 원년(998) 운승(雲勝) 대사의 교감을 거쳐 인경원에서 간행하였다.¹⁰⁾ 이 경전은 대장경에 편입되지 못하고 장외로 있다가 불교계의 수요에 의해 간행되었기 때문에 송과 요의 여러 석기록에 보이지 않고,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권3의 말미인 현성집전(顯聖集傳)의 자료 가운데 들어 있다.

의천은 귀국 후 이듬해 선종 4년(1087)에 초조대장경의 판각이 일단락되자 이듬해에 「법원주림」을 간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때 추조된 권82가 현재 전존본으로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추조본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이는 다른 것과는 달리 송본의 번각임을 알 수 있는데, 판각 솜씨가 이전에 판각된 다른 초조본보다는 다소 떨어지고 재조본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다. 재조본은 추조본에 약간 수정을 가하여 이차로 거듭 번각한 것이어서 판각의 질이 훨씬 떨어진다.¹¹⁾ 이에 대해서는 뒤의 '4. 「법원주림(法苑珠林)」 권82의 초조본과 재조본의 교감 및 판각'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법원주림」 재조본은 고려 고종 31년(1244)에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100권 1,696판 3,392면(실제 판각면 3,322면)이 판각되었는데, 실제 판각된 면수는 3,322 면으로 70면은 인쇄되지 않았다. 대장도감에서는 8권 23판, 9권 23판, 10권 26판, 12권 22판, 13권 15판, 62권 25판, 66권 9판, 67권 14판, 69권 18판, 72권 18판, 73권 11판, 84권 13판, 87권 13판, 90권 16판, 91권 21판, 92권 15판 총 282판으로 전체의 16.6%를 판각하였다. 반면 분사도감에서는 1권 20판, 2권 18판, 3권 16판, 4권 19판, 5권 22판, 6권 24판, 7권 25판, 11권 13판, 14권 23판,

10) 초조대장경 「法苑珠林」 권82 권말 간기: “大宋咸平元年(998)奉勅雕 編錄通慧大師賜紫沙門臣 雲勝 較勘 內品監印經院臣陳景崇 內侍殿頭高品尙當印經院臣 鄭守鈞.”

11) 千惠鳳, “초조대장경,” 『호림박물관 1011-2011 천년의 기다림』 (호림박물관, 2011), 238.

15권 10판, 16권 15판, 17권 18판, 18권 15판, 19권 17판, 20권 16판, 21권 23판, 22권 15판, 23권 17판, 24권 16판, 25권 16판, 26권 12판, 27권 14판, 28권 22판, 29권 21판, 30권 19판, 31권 29판, 32권 22판, 33권 24판, 34권 17판, 35권 27판, 36권 22판, 37권 11판, 38권 19판, 39권 18판, 40권 13판, 41권 10판, 42권 17판, 43권 15판, 44권 12판, 45권 13판, 46권 18판, 47권 14판, 48권 12판, 49권 20판, 50권 11판, 51권 12판, 52권 17판, 53권 17판, 54권 15판, 55권 32판, 56권 17판, 57권 17판, 58권 9판, 59권 14판, 60권 20판, 61권 14판, 63권 20판, 64권 22판, 65권 16판, 68권 18판, 70권 17판, 71권 15판, 74권 10판, 75권 14판, 76권 14판, 77권 14판, 78권 10판, 79권 15판, 80권 14판, 81권 13판, 82권 14판, 83권 12판, 85권 11판, 86권 19판, 88권 20판, 89권 25판, 93권 16판, 94권 15판, 95권 12판, 96권 15판, 97권 16판, 98권 17판, 99권 13판, 100권 23판 총 1,414판으로 전체의 83.3%를 간행하였다.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은 경판을 간행하기 위해 많은 각수들을 동원하였는데 이를 <표 2>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법원주림」 권별 판각 판수 및 면수, 판각년도, 참여 각수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장소 및 년도	참여 각수 인원
1권	20판	40면(39면)	분사도감, 1244	19명: 千文, 仁光, 善均, 性一, 〇〇, 得之, 仁友, 仁石, 成柱, 孝生, 宗有, 自溫, 惠皎, 子余, 得才, 梁比 (16-17판), 利端, 六均, 伯仁
2권	18판	36면(36면)	분사도감, 1244	18명: 守元, 仁哲, 得朱, 惠己, 朴同, 東海, 了英, 呂候, 曹規, 端午, 戒仲, 尹基, 應招, 悟聲, 作星, 全知, 崔呂, 成惠
3권	16판	32면(32면)	분사도감, 1244	17명: 應之, 京升, 戒休, 長存, 洪叙, 弘西, 守長, 富秀, 車羅, 元達, 玄正, 仁京, 希白, 參一, 白珠, 同升, 惠心
4권	19판	38면(37면)	분사도감, 1244	18명: 松甫, 庵狂, 天演, 弘卽, 天未, 唐有, 光著, 下宣, 守呂, 洪忠, 敦素, 全一, 禿牛, 仁基, 益明, 士同, 龍必, 言戒
5권	22판	44면(43면)	분사도감, 1244	22명: 戒安, 禿三, 〇〇, 朴文, 公胃, 正三, 仁安, 允卿, 公甫, 里知, 李丁, 世圭, 宗惠, 允兼, 日元, 仁大, 性良, 仲玄, 道生, 知一, 德惠, 克和
6권	24판	48면(48면)	분사도감, 1244	24명: 克和, 惠堅, 天己, 和正, 益恕, 朴圭, 有林, 敦信, 己玄, 大寧, 永才, 自玄, 知石, 正順, 神默, 〇〇, 學道, 惠光, 金器, 文山, 善小?, 大公, 仁呂, 恒忍

고려 팔만대장경 「法苑珠林」의 판각에 관한 연구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장소 및 년도	참여 각수 인원
7권	25판	50면(49면)	분사도감, 1244	23명: 孝連, 乞右, 賢住, 智周, 大狂, 義兼, 道圭, 用熙, 黑升, 道閑, 宗呂, 希悅(12-13판), 自兼, 學心, 然燈, 寶守, 宗叙, 守連, 良金, 公茂, 善孝, 慈守, 宗仁
8권	23판	46면(46면)	대장도감, 1244	21명: 玄才(1-4판), 克天, 得仁, 義成, 得光, 性溫, 黃令, 定英, 戒?平, 安岷, 洪天, 方哲, 仁厚, 元大, 中一, 洪興, 金呂, 孝林, 法狂, 寶信, 小巴
9권	23판	46면(45면)	대장도감, 1244	18명: 充生, 惠之, 許敦, 袒玄?, 万取, 順眞, 德和(7-11판), 曹圭, 中才(13-15판), 世珍, 大立, 仁亮, 昌老, 文住, 右臣, 法己, 法奇, 文正
10권	26판	52면(52면)	대장도감, 판각년도 미상	24명: 文山, 富令, 宗植, 義天, 昌老, 孝之, 堅就, 金剛, 希赤(希積)(9-10판), 韓璉, 孝大, 惠右, 長守, 宗戒, 自才, 崔同, 習存, 得伊, 金夫, 德暉, 金延, 大林, 之實, 惟正(25-26판)
11권	13판	26면(26면)	분사도감, 1244	13명: ○○, 占大, 日生?, 惟茂, 元己, 戒山, 均住, 松守, 光有, 法眉, 甘大, 忠士, 鄭來
12권	22판	44면(44면)	대장도감, 1244	22명: 天一, 甫才, 洪禮, 元正, 夢月, 大意, 思清, 惠延, 成智, 地起, 之允, 訓道, 生白, 玄祚, 義玄, 石訓, 光父(光裔), 思代?, 志堅, 喜玄, 戒之, 信成
13권	15판	30면(29면)	대장도감, 1244	12명: 玄己, 得林, 志如, 仁立, 仁甫(5-7판), 圭大, 戒元, 福三, 文就(11-12판), 守圭, 法才, 黃守
14권	23판	46면(45면)	분사도감, 1244	22명: 成大, 茂昌, 了眞, 孝眞, 克冲, 習?, 印如, 云正, 戒珠, 利才, 宗希, 丞寶, 莊夫, 英白, 宗素, 惠暉, 宝山, 飯守, 飯一, 玄元, ○○, 己守
15권	10판	20면(20면)	분사도감, 1244	10명: 禱夫, 伯仁, 金寶, 時延, 卜龍, 惠珠, 得平, 得才, 漢平, 寶干
16권	15판	30면(29면)	분사도감, 1244	10명: 禮全(1-3판), 了英(5-6판), 尹脩, 一義(8-9판), 戒印, 保延, 戒眞, 志英, 元山, 嚴大
17권	18판	36면(35면)	분사도감, 1244	18명: 唵狂, 公晉, 光照, 保中, 孝元, 白和, 心惠, 只每, 惠心, 士道, 三旅, 仁光?, 弘卽, 就和, 玄訓, 代?夫, 能大, 敦己
18권	15판	30면(29면)	분사도감, 1244	14명: 文大, 益成, 孝生, ○○, 山一, 允仁, 正歲, 松甫, 承輝, 大能, ○○, 一?成, 得朱, 升有
19권	17판	34면(31면)	분사도감, 1244	17명: 乞者, 呂希, 天訓, 同升, 宗老, 順一, 惠求, 子龍, 長存, 成美, 戒休, 權甫, 端平, 元呂, 信戒, 千才, 得希
20권	16판	32면(31면)	분사도감, 1244	16명: 道閑, 公秀, 天然, 李丁, 益恕, 定兼, 希呂, 崔呂, 朴文, 文圭, ○○, 三中, 正因, 仁大, 希白, 法京
21권	23판	46면(45면)	분사도감, 1244	23명: 光呂, 公彌, 東海, 富秀, 均狂, 成柱, 克和(7-8판), 得之, 希行, 元達, 國甫, 義溫, 全一, 孝心?, 宗湛?, ○○, 惠分, 正平, 性一, 孝連, 長生, 之奕, 南甫?
22권	15판	30면(29면)	분사도감, 1244	13명: 全知, 各因, 仁安, 仲玄, 河住(5-6판), 天亮, 得仁, 知右, 守呂, 王必, 戒安, 尹脩, 禿三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장소 및 년도	참여 각수 인원
23권	17판	34면(33면)	분사도감, 1244	13명: 呂候, 得朱(3-5판), 龍必, 應招, 元山, 松比(9-10판), 李文, 宗法, 良金, ○○, 作成, 善才, 宗父
24권	16판	32면(31면)	분사도감, 1244	15명: 全呂, 道生, 仁呂, 金奇, 恒忍, 道圭, 惠中, 洪興, 金眞?, 成惠, 仁京, 均才(12-13판), 孝道, 文住, 和正
25권	16판	32면(32면)	분사도감, 1244	16명: 玄起, 士同, 大之, 大莊, 定英, 大千, 敦素, 宝祥, 仁基, 中守, 光進, 惠堅, 慈心, 大寧, 文正, 里知
26권	12판	24면(23면)	분사도감, 1244	12명: 文三, 法己, 卞宣, 天真, 朴同, 一中, 彦光, 眞立, 光著, 戒仲, 順圭, 右臣
27권	14판	28면(27면)	분사도감, 1244	14명: 宝信, 宝守, 孝大, 仁素, 子余, 唐有, 益明, 元文, 金升, 仁祐, 學心, 允卿, 中一, 善均
28권	22판	44면(43면)	분사도감, 1244	20명: 惠己, 七宝, 義成, 神默, 允兼, 希悅(7-8판), 堅就, 千丈, 世英, 有林, 禿牛, 文公, 安岷, 自兼, 日元, 公甫, 玄住, 儀一, 順眞, 乞者
29권	21판	42면(42면)	분사도감, 1244	21명: 順眞, 金夫, 金剛, 富令, 六均, 惠宗, 義玄, 自大, 甘大, ○○, 宗呂, 正三, 天升, 惠光, 孝林, 宗牧?, 長命, 德暉, 玆守, 崔同, 日生
30권	19판	38면(37면)	분사도감, 1244	18명: 惟正, 之實, 惠暉, 光呂, 云正, 大林, 然燈, 宗一, 己玄, 知一, 升有, 洪禮, 洪忠, 昌老, 曹守, 英白, 公代?, 光齋
31권	29판	58면(57면)	분사도감, 1244	28 : 金延, 許敦, 均柱, 仁哲, 大純, 有光, 黃令, 白珠, 世珍, 韓鍾, 宗植, 黑升, 己守, 得光, 仁厚, 有元, 惠皎, 仁幹, 元幹, 宗戒, 學道, 孝眞, 義兼, 守連, 大立, 守長, 朴圭, 得平
32권	22판	44면(43면)	분사도감, 1244	22명: 善孝, 了眞, 道閑, 志堅, 志如, 子龍, 小巴, 自溫?, 悟聲, 性溫, 世圭, 性良, 得希, 文山, 生白, 宗叙, 義天, 宗惠, 崔茂, 惠之, 克毛?, 宗衍?
33권	24판	48면(48면)	분사도감, 1244	22명: 申智, 克夫(2-3판), 丁義, 玄祚, 宝己, 嚴大, 惠元(8-9판), 戒元, 元正, 丞?, 昌老, 得韶?, 敦信, 曹圭, 敦己, 甫才, 惠右, 宝信, 得伊, 孝演, 習存, 祿元
34권	17판	34면(34면)	분사도감, 1244	17명: 世景, 利才, 道訓, 宗因, 用熙, 飯守, 戒之, 京升, 令順, 德惠, 惟正, 升文, 明一, 仁亮, 仁立, 應之, 金宝
35권	27판	54면(54면)	분사도감, 1244	27명: 戒珠, 大節?, 成大, 元山, 祀?子, 夢月, 允生, 志英, 正順, 同升, 徐有, 金呂, 道一, 喜玄, 福三, 漢平, 戒山, 克中, 惠延, 万取, 承輝, 代?夫, 得才, 黃守, 戒眞, 天一, 文大
36권	22판	44면(44면)	분사도감, 1244	21명: 端午, 孝生, 戒宗, 順一, 守山, 元呂, 仁安, 利才, ○○, 山一, 孫綽, 地起, 洪天, 宝千, 孝○, 法山, 大公, 公茂, 祿三, 印?如, 唐齋
37권	11판	22면(21면)	분사도감, 1244	8명: 大能, 仁光, 孝元, 惠心, 時?茂, 長守, 慈心(8-10판), 升才
38권	19판	38면(37면)	분사도감, 1244	16명: 高哲, 方哲, 茂昌, 龍必, 梁比(5-7, 11판), 占?大, 東海, 法狂, 玄正, 甫○, 法京, 性一, 承宝, 戒印, 成柱, 元己

고려 팔만대장경 「法苑珠林」의 판각에 관한 연구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장소 및 년도	참여 각수 인원
39권	18판	36면(35면)	분사도감, 1244	18명: 成智, 朴文, 晦狂, 信成, 全知, 洞圭, 法雷, 洪興, 弘即, 寶龍, 永才, 仲玄, 得之, 思允?, 李一, 富秀, 心惠, 元達
40권	13판	26면(26면)	분사도감, 1244	12명: 守呂, 戒照, 仁京, 光有, 宗老, 釗宗, 孝心, 恒忍, 飯一, 金器, 均狂, 己石
41권	10판	20면(19면)	분사도감, 1244	9명: 均柱, 應招, 仁呂, 允仁, 大狂, 良金, 大之, 玄且, 宗义
42권	17판	34면(34면)	분사도감, 1244	16명: 善才, 公必, 寶守, 大千, 正因, 禿三, 克和(7-8판), 石訓, 宗素, 宗希, 南保, 得仁, 惠己, 千才, 里知, 金水
43권	15판	30면(29면)	분사도감, 1244	14명: 仁大, 公胃(2-3판), 法眉, 平, 益恕, 戒安, 長存, 山寶, 益明, 益成, 乞者, 玄希, 道生, 文住
44권	12판	24면(23면)	분사도감, 1244	12명: 善均, 朴同, 能大, 孝林, 全一, 謹甫, 之奕, 法才, 長生, 定英, 戒平, 得林
45권	13판	26면(25면)	분사도감, 1244	13명: 金寶, 惠中, 崔呂, 國圭, 宗有?, 法己, 希呂, 六均, 元大, ○○, 守圭, 知石, 保延
46권	18판	36면(35면)	분사도감, 1244	18명: 呂侯, 大寧, 金良, 大意, 得朱, 高哲, 惠暉, 希衍, 朴希, 各因, 日生, 敦素, 慈守, 王必, 宗衍?, 松甫, 中一, 中守
47권	14판	24면(28면)	분사도감, 1244	14명: 慈心, 右臣, 宗景, 定兼, 文正, 順眞, 思千, 思青, 作成, 希悅(9-10판), 守元, 宗呂, 天演, 元公
48권	12판	24면(23면)	분사도감, 1244	12명: 洪礼, 玄住, 仁基, 丞印?, 光义, 惠分, 義玄, 金延, 自兼, 文正, 信敬, 有元
49권	20판	40면(39면)	분사도감, 1244	18명: 義芬, 崔均, 有林, 金天, 宗戒, 金鍊, 堅就, 希伯, 允卿, 仁幹, 升有, 定祚(12-13판), 玄才(14-15판), 富令, 金剛, 大林, 崔同, 元山
50권	11판	22면(21면)	분사도감, 1244	6명: 士同, 之實, 光照(3-5판), 公綽(7-9판), 惠堅, 日天
51권	12판	24면(24면)	분사도감, 1244	11명: 惠珠, 得光, 子龍, 云正, 光進, 戒休, 仁大, 知一, 忠一, 性溫, 文山
52권	17판	34면(34면)	분사도감, 1244	17명: 朴京, 金進, 允兼, 許敦, 元仁文, 吉祥, 甘大, 意兼, 元達, 戒孫, 大能, 正藏, 國甫, 仁哲, 時達, 玄起, 天惠?
53권	17판	34면(33면)	분사도감, 1244	17명: 富甫, 利才, 德, 惠之, 保守, 學心, 金呂, 克毛, 志如, 承輝, 尹基, 袒玄?, 成智, 志堅, 義溫, 文一, 宗牧
54권	15판	30면(29면)	분사도감, 1244	13명: 松比(1-3판), 飯守, 得希, 己守, ○○, 志英, 惟正, 良, 徐有, 成大, 學道, 得才, 然燈
55권	32판	64면(64면)	분사도감, 1244	31명: 只每, 宝山, 世英, 昌老(4-5판), 了眞, 生白, 英白, 孝眞, 克中, 戒珠, 孝光?, 宝信, 文三, 己玄, 朴圭, 子余, 士道, 正三, 白朱, 金寶, 伯仁, 代?夫, 山一, 龍必, 安岷, 宗惠, 惟正, 千丈, 存立, 宗景, 三旅
56권	17판	34면(34면)	분사도감, 1244	16명: 玄祚, 呂候(2-3판), 黑升(4-5판), 同升, 祿大, 孝秀, 仁祚?, 成呂, 道守, 戒宗, 善孝, 用希, 習存, 唐有, 惠皎, 孝生
57권	17판	34면(33면)	분사도감, 1244	17명: 玄照, 順圭, 道圭, 陳義, 成惠, 惠延, 道閑, 茂昌, 公甫, 得貂?, 唐裔, 惠求, 南○, 弘即, 惠永, 卜三, ○孝
58권	9판	18면(18면)	분사도감, 1244	1명: 希悅(1-9판)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장소 및 년도	참여 각수 인원
59권	14판	28면(28면)	분사도감, 1244	14명: 孝文, 公式, 天未?, ○演, 希積, 希?赤, 乞就, 性一, 大公, 守山, 天一, 元正, 宗法, 升才
60권	20판	40면(40면)	분사도감, 1244	20명: ○○, 文住, 惠右, 全知, 眞立, 元己, 金升, 士同, 仲玄, 韓璉, 仁厚, 文大, 玄希, 得伊, 仁光, 戒山, 朴文, 孝元, 宝龍, 光有?
61권	14판	28면(27면)	분사도감, 1244	11명: 得林, 同升(3-4판), 自才, 敦信, 宗園, 大立, 洪忠, 成柱, 漢平, 克夫(12-13판), 益叙
62권	25판	50면(50면)	대장도감, 1244	23명: 長命, 尹脩(2, 4판), 惠心, 千才, 李丁, 大寧, 富秀, 宝守, 仁京, 恒忍, 大千, 大之, 公守, 仁安, 了英(16-17판), 光呂, 應招, 良金, 崔呂, 鄭洪, 宗义, 戒之, 文山
63권	20판	40면(40면)	분사도감, 1244	20명: 均狂, 禿三, 卜龍, 守長, 洪禮, 神默, 惠印, 得平, 孝順, 元進, 戒眞, 順眞, 印如, 地起, 朴同, 光有, 元公, 守呂, 思代?, 戒照
64권	22판	44면(44면)	분사도감, 1244	21명: 甫才, 大純, 定英, 元呂, 禿于, 炎大, 嚴大, 義天, 敦己, 公必, 小巴, 崔呂, 庵狂, 長守, 文就, 宗叙, 宝幹(宝于), 正因, 宗素, 得之, 保延, 崔茂
65권	16판	32면(32면)	분사도감, 1244	12판: 里知, 惠殊, 文必(3-6판), 保令, 充生, 京升, 三旅, 得光, 宝祥, 右臣, 金良, 順一
66권	9판	18면(18면)	대장도감, 1244	8명: 克和(1-2판), 法狂, 端午, 日生, 宗呂, 飯一, 道生, 可弘
67권	14판	28면(27면)	대장도감, 1244	13명: 權甫, 夢月, 中一, 崔均, 高哲, 法基, 訓道, 金夫, 惠暉, 文公, 福守, 戒休, 黃令
68권	18판	36면(36면)	분사도감, 1244	16명: 均狂, 戒安, 益明, 長生, 志公?, 大士, 洪興, 天眞, 得希, 宗戒, 得韶?(11-12판), 文正, 尹弘, 洞圭, 國圭, 南宝
69권	18판	36면(35면)	대장도감, 1244	18명: 一中, 全一, 邦哲(方哲), 益怒, 乞石, 善才, 光义, 有元, 道一, 順眞, 惟正, 三中, 義玄, 元文, 金延, 宗希, 金剛, 王必
70권	17판	34면(34면)	분사도감, 1244	13명: 有林, 大林, 孝大, 儀一, 金鍊, 之實, 尹弘(7-10판), 長存, 天永, 大狂, 思景, 升有, 孫綽
71권	15판	30면(30면)	분사도감, 1244	12명: 金呂, ○○, 富令, 韓連, 閔連, 宝奇, 保冲(9-10판), 允仁, 敦素, 信成, 令順, 希悅
72권	18판	36면(36면)	대장도감, 1244	17명: 惠全, 希悅, 惠元(3-4판), 乞者, 惠己, 自溫, 信成, 克夫, 崔同, 希衍, 守元, 元達, 惠芬, 正藏, 仁大, 占大, 孝道
73권	11판	22면(22면)	대장도감, 1244	10명: 祖玄, 法京, 慈守, 唐甫, 得朱, 仁, 思允, 玄照, 克夫, 得韶?(10-11판)
74권	10판	20면(20면)	분사도감, 1244	10명: 得韶?, 宝升, 德惠, 許敦, 志如, 戒元, 金光, 尹基, 同升, 崔因
75권	14판	28면(28면)	분사도감, 1244	13명: 李文, 公代?, 同升, 之實, 云正, 大能, 中守, 德暉, 得韶?, 法林, 國宝, 作成, 思淸
76권	14판	28면(28면)	분사도감, 1244	13명: 明一, 能大, 思仁, 宝龍, 孝眞, 元大, 三旅, 惟正, 之奕, 崔呂(9-11판), 得仁, 仁亮, 祿三

고려 팔만대장경 「法苑珠林」의 판각에 관한 연구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장소 및 년도	참여 각수 인원
77권	14판	28면(27면)	분사도감, 1244	14명: 甫山, 徐有, 飯守, 玄住, 克天, 孝生, 戒珠, 石訓, 甘大, 惠之, 益成, 克中, 天亮, 元幹
78권	10판	20면(19면)	분사도감, 1244	10명: 學心, 大立, 成大, 朴圭, 昌老, 惠堅, 道守, 得才, 志堅, ○○
79권	15판	30면(29면)	분사도감, 1244	15명: 戒宗, 龍必, 世赫?, 時挺?, 英白, 道閑, 允兼, 鄭洪, 慈守, 代?, 法才, 玄起, 戒平, 万就, 黃守
80권	14판	28면(27면)	분사도감, 1244	11명: 朴分, 宗衍, 昌老(3-4판), 宝希?, 利才, 飯一, 天兼, 永才, 學成, 云正(11-12판), 河俊(13-14판)
81권	13판	26면(26면)	분사도감, 1244	12명: 玄正, 曹規, 黃○, 弘韻(4-5판), 正平, 己玄, 惠珠, 性良, 唐义, 千丈, 希悅, 玄祥
82권	14판	28면(28면)	분사도감, 1244	14명: 仁安, 仲玄, 了眞, 尹基, 茂昌, 成智, 金宝, 義成, 仁幹, 守圭, 卞三, 惠延, 法雷, 只每
83권	12판	24면(23면)	분사도감, 1244	12명: 呂候, 用希, 李守, 習存, 仁呂, 公甫, 朴文, 善均, 知一, 宗呂, 得朱, 眞立
84권	13판	26면(26면)	대장도감, 1244	10명: 安峽, 得朱(2-3판), 大千, 祿?大, 吉祥, 公茂(7-9판), 仁京, 得進, 宗湛?, ○白
85권	11판	22면(22면)	분사도감, 1244	10명: 孝光, 光進, 金升, 全知, 和正, 敦巾, 希悅, 正順, 義溫, 世英
86권	19판	38면(37면)	분사도감, 1244	18명: 善孝, 黑升, 千才, 大之, 性一, 文大, 希呂, 禿三, 自兼, 思代?, 恒忍, 應招, 天一, 宝守, 希伯, 成惠, 惠光, 朴京
87권	13판	26면(26면)	대장도감, 1244	12명: 文一, 金奇, 良金, 道休, 知石, 富秀, 元正, 神默, 玄且, 志公, 子龍, 漢平(12-13판)
88권	20판	40면(39면)	분사도감, 1244	17명: 甘溫, 元呂, 惠右, 光著, 李時, 成呂, 均狂, 士同, 益恕, 云正, 福守, 長存, 順眞, 昌老, 了眞, 宗义, 希元
89권	25판	50면(49면)	분사도감, 1244	25명: 金世, 學道, 河仁义, 甫山, 洪忠, 正三, 文住, 金呂, 惠峻, 保中, 至英, 宝信, 大土, 心惠, 昌老, 宗鳳, 孝元, 戒眞, 甘大, 克夫, 孝順, 丞下?, 克和, 惟正, 希悅
90권	16판	32면(31면)	대장도감, 1244	16명: 洪天, 炎大, 玄希, 子余, 元公, 崔呂, 法眉, 克和, 甫升, 檀甫, 惠暉, 自玄, 承輝, 定英, 惟正, 金進
91권	21판	42면(41면)	대장도감, 1244	21명: 生白, 得伊, 一中, 宗惠, 有林, 朴同, 洪禮, 元呂, 加大, 朴希, 李丁, 成柱, 韓璉, 應之, 里知, 得允, 道訓, 正時, 元進, 昌老, 希悅
92권	15판	30면(30면)	대장도감, 1244	15명: 禹臣, 希悅, 日生, 禿牛, 得光, 戒安, 元呂, 宗叙, 戒山, 克夫, 惟正, 大狂, 義玄, 金剛, 崔呂
93권	16판	32면(31면)	분사도감, 1244	16명: 均狂, 地起, 洪一, 公必, 孝心, 了英, 公禪(8-9판), 宗植, 升有, 世圭, 韓璉, 惟正, 林才, 文公, 松郎, 端午
94권	15판	30면(29면)	분사도감, 1244	12명: 金鍊, 定祚(3-4판), 庵狂, 惠珠, 丁義(7-8판), 知石, 金夫, 戒之, 恒忍, 陳義, 飯一, 宗法
95권	12판	24면(24면)	분사도감, 1244	12명: 富令, 守長, 敦素, 惠求, 玄才, 希可, 玄才, 悟聲, 崔同, 飯守, 得希?, 仁呂
96권	15판	30면(29면)	분사도감, 1244	17명: 東海, 義天, 祿祥, 惠如, 大林, 孝林, 益明, 得光, ○○, 長命, 仁厚, 公弼, 得林, 參?一?, 守山, ○○, 乞者

권수	판수	면수(판각 면수)	판각장소 및 년도	참여 각수 인원
97권	16판	32면(32면)	분사도감, 1244	9명: 德和(1-5판), 大能, 希悅, 宗戒, 義兼, 大立, 道守, 仁呂, 得仁
98권	17판	34면(34면)	분사도감, 1244	16명: 有元, 洞圭, 孝生, 利才, 山一, 元正, 希悅, 堅就, 仁呂, 保仲, 朴圭, 天演, 知延, 仁哲, 云正, 河代
99권	13판	26면(26면)	분사도감, 1244	12명: 万就, 孝大, 道住, 尹基, 白知, 思景, 宝山, 元達, 宝于, 尹基, 法林, 休分
100권	23판	46면(46면)	분사도감, 1244	19명: 之實, 希悅, 仁光, 甫○, 宗希, 思淸, 宝于(7-10판), 昌老, 智周, 敦素, 克毛, 光裔, 保冲, 克中, 希悅, 宗牧(19-20판), 宝志, 昌老, 克夫
총계	1,696판 대장도감: 282판 분사도감: 1,414판	3,392면(3,322면)	대장도감 분사도감 1244년	권별각수 1,579명 (중복된 동일각수를 1인으로 보는 경우 602명)

위의 <표 2>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원주립』 100권을 간행하는데 동일 각수의 중복을 제외하고 권별로 동원된 각수는 1,579명이다. 동일 각수를 1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602명이 동원되었다. 602명의 각수가 1,696판 전체를 판각한 경우로 보면 각수 1인당 2.8판을 새긴 것이 되고, 판각면수(실제 판각 면수)인 3,398면(실제 3,328면)을 가지고 계산하면 1인당 약 5.6면(5.5면)을 새긴 것이 된다.

(2) 고종 31년(1244) 1년 내에 100권 1,696판 모두 간행하기 위해 602명의 각수를 동원하여 분담량이 적도록 하였다. 1,696판 중 각수가 나타나는 것은 1,670판이며, 26판에는 각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각수 602명이 1,670판을 분담한 내역을 살펴보면, 1판 198명(198판), 2판 106명(212판), 3판 115명(345판), 4판 90명(360판), 5판 66명(330판), 6판 13명(78판), 7판 2명(14판), 8판 4명(32판), 9판 1명(9판), 10판 4명(40판), 12판 1명(12판), 14판 1명(14판), 26판 1명(26판)이다. 1판을 간행한 각수가 198명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3판을 간행한 각수가 115명으로 19.1%, 2판이 106명으로 17.6%, 4판이 90명으로 14.9%, 5판은 66명으로 10.9%, 6판은 13명으로 2.1%, 8판과 10판이 4명으로 0.6%, 7판은 2명으로 0.3%, 9판, 12판, 14판, 26판은 각 1명으로 0.1%이다. 이처럼 1판을 새긴 각수가 전체의 32.8%를 차지하고, 2판과 3판을 담당할 각수가 36.7%, 4판과 5판이

25.8%를 차지하고 6판 이상이 3.4%에 불과하였다. 이는 판수가 적어질수록 각수가 많아지고, 판수가 많아질수록 각수가 적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고종 30년(1243)부터 분사대장도감에서 경판이 조성됨에 따라 대장도감의 사업 운용 및 각성인의 추이가 변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고종 31년 당시 대장도감에서 160종 1,449권으로 909명, 분사대장감에는 30종 273권으로 688명이 참여하였다. 대장도감에서만 활동한 각수가 909명인데 이 중 신참여 각수는 219명이고, 분사대장도감에서는 668명 중 신참여 각수는 104명이었다.¹²⁾ 이와 같이 신참여 각성인이 대거 늘어나면서 각자가 판각하는 양은 줄고 참여인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3) 9판 이상을 담당한 각수는 8명(101판)인데, 희열(希悅)이 26판, 창노(昌老) 14판, 유정(惟正) 12판, 극화(克和) 10판, 덕화(德和) 10판, 득주(得朱) 10판, 최려(崔呂) 10판, 극부(克夫) 9판이다. 이들은 여러 판을 새겼음에도 한 권을 집중적으로 작업한 경우는 드물다. 희열이 58권만을 독자적으로 판각하고, 나머지는 2판 또는 1판을 분산해서 새겼다. 덕화가 10판을 새기면서 9권과 97권의 5판씩 새겼고, 다른 각수들은 2판과 1판씩 분산해서 새겼다. 이들 분담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중 희열이 26판으로 가장 많은 판을 새겼는데, 58권(1판-9판), 7권(12판-13판), 28권(7판-8판), 47권(9판-10판), 100권(2판), 71권(1판), 72권(1판), 81권(1판), 85권(1판), 89권(1판), 91권(1판), 92권(1판), 97권(1판), 98권(1판)이다. 창노는 14판을 새겼는데, 55권(4-5판), 80권(3-4판), 100권(2판), 9권(1판), 10권(1판), 30권(1판), 33권(1판), 78권(1판), 88권(1판), 89권(1판), 91권(1판)이다. 유정은 12판을 새겼는데, 10권(25-26판), 30권(1판), 34권(1판), 54권(1판), 55권(1판), 69권(1판), 76권(1판), 89권(1판), 90권(1판), 92권(1판), 93권(1판)이다. 극화가 10판을 새겼는데, 21권(7-8판), 42권(7-8판), 66권(1-2판), 5권(1판), 6권(1판), 89권(1판), 90권(1판)이다. 덕화는 10판을 새겼는데, 9권(7-11판), 97권(1-5판)이다. 득주는 10판을 새겼는데, 23권(3-5판), 84권(2-3판), 2권(1판), 18권(1판), 46권(1판), 73권(1판), 83권(1판)이다. 분사도감의 각수로 활약했던

12)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景仁文化社, 2006), 173-175.

최려는 10판을 새겼는데, 76권(9-11판), 2권(1판), 20권(1판), 45권(1판), 62권(1판), 64권(1판), 90권(1판), 92권(1판)이다. 극부는 9판을 새겼는데, 33권(2-3판), 61권(12-13판), 72권(1판), 73권(1판), 89권(1판), 92권(1판), 100권(1판)이다.

(4) 각수들은 자신의 이름을 음이 같은 다른 글자로 변형하고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보이는데, 각수 표시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광예(光乂, 光齋), 방철(方哲, 邦哲), 보간(宝干, 宝幹), 희적(希積, 希赤) 등이 있다. 광예는 5판을 담당했는데, 48권(분사도감)과 69권(대장도감)에는 ‘光乂’로 나타나고, 분사도감에서 이루어진 30권과 100권에는 ‘光齋’로 나타난다. 대장도감에서 판각된 12권의 17판 전면에는 ‘光乂’, 후면에는 ‘光齋’로 표기하여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광예는 1243년과 1244년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입장한 『능가아발다라보경(楞伽阿跋多羅寶經)』 3권(1243, 대장도감), 『속고승전(續高僧傳)』 1권(1243, 분사도감), 『잡보장경(雜寶藏經)』 18권(1244, 분사도감)의 일부 판각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경전에서도 ‘光乂’, 또는 ‘光齋’로 표시하고 있다. 방철은 대장도감에서 이루어진 8권과 9권에는 ‘方哲’로 나타나고, 69권에 ‘方哲’ 또는 ‘邦哲’로 판각되어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보간은 분사도감에서 판각된 15권과 36권에는 ‘宝干’으로 나타나고, 대장도감에서 이루어진 69권에 ‘宝干’ 또는 ‘宝幹’으로 제시되어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희적은 분사도감에서 판각된 59권에는 ‘希積’으로 나타나고,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10권에는 ‘希赤’ 또는 ‘希積’으로 제시되어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5) 출신성분을 알 수 있는 각수들이 있는데, 문인지식인, 승려지식인, 하급관료층, 최씨무인정권의 사노, 불교계의 화엄종, 유가종, 선종 사굴산문의 승려들이다.

첫째, 문인지식인으로는 광조(光照), 득지(得之), 문정(文正)이다. 이들은 고려 명종(1171-1197)부터 고종(1214-1259) 사이에 국자감시에 급제한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¹³⁾ 광조는 김광조(金光照, 金光祖)이며 분사도감에서 17권(1판)과 50권(3-5판)의 3판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득지는 윤득지(尹得之)이며 분사도감에서 1권, 21권, 39권, 64권의 각 1판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문정은 박문정(朴文

13) 金潤坤, “『고려대장경』의 각판과 국자감시 출신,” 『國史館論叢』 46(1993), 81-83.

正)이며 9권, 25권, 47권, 48권, 68권의 각 1판을 판각하였는데, 9권은 대장도감에서 25권, 47권, 48권, 68권은 분사도감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승려지식인으로는 산인(山人)으로 신분표시를 하고 있는 신성(信成)과 귀일(皈一)의 참여이다. 신성은 고려 고종때 간행한 『대승현식경(大乘顯識經)』 권상 17장에 ‘祝?山人 信成’으로 표시하여 그가 고려 무인집권기에 은자인 일사(逸士)임을 알려주고 있다. 신성은 고려 고종 25년(1238)~고종 27년(1240), 고종 29년(1242)과 고종 31년(1244)까지 5년동안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각판에 참여하였다.¹⁴⁾ 신성은 12권, 39권, 71권, 72권의 4판에 참여하였는데, 12권, 72권 각 1판은 대장도감에서 39권과 71권의 각 1판은 분사도감에서 이루어졌다. 귀일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16의 고율시(古律詩)의 ‘次韻 金承制仁鏡 謝規禪師贈歸一上人所畫老檜屏風’과 같은 책 권19 <잡저(雜著)> ‘畫老松贊’에 나오는 귀일과 같은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사람은 『법원주립』 14권, 40권, 66권, 80권, 94권 각 1판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66권은 대장도감에서, 14권, 40권, 66권, 80권, 94권은 분사도감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하급관료층으로 판각에 참여한 이는 인간(仁幹)이다. 그는 고종 5년(1218) 경군(京軍)인 2군 6위의 용호군(龍虎軍)에 소속한 대정(隊正)의 위치에 있으면서 경선사(景禪寺) 금금구(金禁口) 조성불사에서 동량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¹⁵⁾ 인간(仁幹)은 고종 30년(1243)~32년(1245)의 3년 동안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판각사업에 참여하여 총 88장의 경판을 판각하였는데, 『법원주립』의 경우 31권, 49권, 82권의 각 1판의 판각에 참여하였으며 모두 분사도감에서 이루어졌다.

넷째, 최씨 정권의 사노(私奴)로서는 김기(金奇)와 장수(長守)가 있다. 김기는 『고려사(高麗史)』 권130 김준전(金俊傳)에 나오는데, ‘金己’, ‘金奇’, ‘金寄’, ‘金基’, ‘金器’, ‘金祺’ 또는 ‘金’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김기는 고종 30년(1243)~31년(1244)에 대장경 판각에 참여하였는데,¹⁶⁾ 『법원주립』의 판각에는 24권과

14) 최영호,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 경전의 구성체계와 참여자의 출신성분』 (景仁文化社, 2009), 150.

15) 최영호, 前掲書, 169.

87권의 각 1판을 담당하였다. 27권은 대장도감에서, 87권은 분사도감에서 이루어졌다. 장수는 『고려사(高麗史)』 권129 최의전(崔埴傳)에 나오는 섭장수(攝長壽, 攝長守)이다. 그는 고종 30년(1243)~31년(1244)에 대장경 판각에 참여하였는데,¹⁷⁾ 『법원주립』의 판각에는 10권, 37권, 64권의 각 1판을 담당하였다. 10권은 대장도감에서 37권과 64권은 분사도감에서 이루어졌다.

다섯째, 불교계의 화엄종, 유가종, 선종 사굴산문의 승려들이 판각에 참여하였다. 화엄종의 승려는 지일(知一), 종일(宗一), 장존(長存)이다. 지일은 해인사 사장본인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판각에 나타나는 각수로 ‘智一’ 또는 ‘知一’로 표기되며 『법원주립』의 판각에는 5권, 30권, 51권, 83권의 각 1판을 담당하였는데 모두 분사도감에서 이루어졌다. 종일과 장존에 대해서는 『安養社飯子』에 보면, “13세기 중엽 지리산 안양사(安養社)의 반자(飯子)를 주성하는 과정에서 도인(道人) 종일(宗一)은 동량(棟梁)을 장존(長存)은 사람을 부리는 사용(使用)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였다.¹⁸⁾ 이 두 사람은 고종 30년(1243)~32년(1245)에 대장경 판각에 참여하였다. 종일은 『법원주립』의 판각에는 분사도감에 이루어진 30권의 1판에 관여하였다. 장존 역시 『법원주립』 판각에는 분사도감에 이루어진 3권, 19권, 43권, 70권, 88권의 각 1판에 참여하였다. 유가종의 승려는 대공(大公), 혜영(惠永), 계안(戒安)이 참여하였다. 대공은 현화사 출신의 승려로 고려 희종 3년(1207) 자복사(資福寺)의 반자(飯子)를 조성하는 공덕자로 관여하였고, 고종 31년(1244)~32년(1245) 대장경 판각에 관여하였다.¹⁹⁾ 대공은 『법원주립』의 판각에는 분사도감에서 이루어진 6권, 36권, 59권의 각 1판에 관여하였다. 혜영은 충렬왕때 홍진국존(弘眞國尊)으로 추존된 유가종의 승려로 각성사업이 진행된 고종 23년(1236)~38년(1251)에 활동하였고, 『법원주립』의 판각에는 분사도감의 57권 1판에 관여하였다.²⁰⁾ 계안은 덕주사(德周寺) 소속으로 희종 2년

16) 최영호, 前掲書, 175-176.

17) 최영호, 前掲書, 175-176.

18) 許興植, “<安養社飯子>,” 『韓國金石全文』, 中世下(아세아문화사, 1984), 1040-1041.

19) 최영호, 前掲書, 212-213.

20) 최영호, 前掲書, 212-214.

(1206) 8월 21일 덕주사의 금구(禁口) 1좌(坐를)를 조상하는 불사에서 동량(棟梁)을 담당하였다.²¹⁾ 그는 고종 25년(1238), 고종 27년(1240), 고종 28년(1241), 고종 30년(1243), 고종 31년(1244) 5년 동안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판각에 관여하였다. 「법원주립」의 판각에는 분사도감의 5권, 22권, 43권, 68권 각 1판과 대장도감의 92권 각 1판에 참여하였다. 선종 사굴산문(闍崛山門)의 승려는 천영(天永), 전일(全一), 수원(守元)이 참여하였다. 천영은 수선사의 5대 법주를 맡았던 인물이다. 천영은 고종 31년(1244)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판각에 관여하였다. 「법원주립」의 판각에는 분사도감의 70권의 1판에 관여하였다. 사굴산문의 하급 승계인 전일은 「법원주립」의 판각에는 분사도감의 4권, 21권, 44권 각 1판과 대장도감의 69권의 각 1판에 관여하였다. 수원은 「법원주립」의 2권, 47권, 72권 각 1판의 판각에 관여하였다. 2권과 47권은 분사도감에서 72권은 대장도감에서 이루어졌다.

4. 「법원주립」 권82 초조본과 재조본의 교감 및 판각의 특징

초조본 「법원주립」은 선종 4년(1087)에 초조재장경의 판각이 일단락되자 이듬해인 선종 5년(1088)에 의천이 간행할 것을 건의하여 추조된 것인데, 현재 권82가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²²⁾ 디지털이미지는 대장경연구소의 지식베이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권82의 내용은 육도편(六度)편 중의 지계부(持戒部)와 인욕부(忍辱部)에 속한다. 지계부는 술의부(述意部), 권지부(勸持部), 인증부(引證部), 감응연(感應緣)으로 구성되었고, 인욕부는 술의부(述意部), 권인부(勸忍部), 인덕부(忍德部), 인증부(引證部)로 이루어졌다.

재조본은 고려 고종 31년(1244)에 대장도감에서 초조대장경을 저본으로 번각

21) 許興植, “<德周寺禁口>” 『韓國金石全文』 中世下(아세아문화사, 1984).

22) 이 논문에서 데이터로 사용하는 「법원주립」 권82 초조본의 사진 14장은 호림박물관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이 사진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호림박물관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하여 판각되었다. 권82의 14판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14명으로 인안(仁安), 중현(仲玄), 요진(于眞), 윤기(尹基), 무창(茂昌), 성지(成智), 김보(金寶), 의성(義成), 인간(仁幹), 수규(守圭), 변삼(卞三), 혜연(惠延), 법뇌(法雷), 지해(只每)이다. 14명의 각수가 각 1판 2면씩 새겨서 완성한 것이다. 이들 각수가 새긴 재조본이 초조본에 근거하여 새겼으므로 초조본과 재조본을 비교하고 교감 및 판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법원주림」 권82 초조본과 재조본의 교감

「법원주림」 권82 초조본(A본)과 재조본(B본)의 내용을 대조하여 판각을 하기 전에 어떻게 교감을 했는지 그 내역을 <표 3>으로 정리하고 <그림 1>~<그림 14>를 참고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법원주림」 권82 초조본(A본)과 재조본(B본)의 교감

번호	비교항목	「법원주림」 권82 초조본(A본)	비교항목	「법원주림」 권82 재조본(A본)
1	1판 전면 1행 <그림 1-1>	二十八紙	1판 전면 1행 <그림 1-2>	仁安
2	6판 전면 9행 <그림 6 전면 6-1>	刑	6판 전면 9행 <그림 6 전면 6-2>	刑
3	6판 전면 15행 <그림 6 전면 6-1>	至天受快樂	6판 전면 15행 <그림 6 전면 6-2>	生天受快樂
4	6판 후면 2행 <그림 6 후면 6-1>	形	6판 후면 2행 <그림 6 전면 6-2>	形
5	7판 후면 4행 <그림 7-1>	但觀一谷猛火洞然	7판 후면 4행 <그림 7-2>	但觀一合猛火洞然
6	7판 후면 4행 <그림 7-1>	良久佇望	7판 후면 4행 <그림 7-2>	良久佇望
7	8판 전면 2행 <그림 8-1>	驅豬百餘頭	8판 전면 2행 <그림 8-2>	驅豬百餘頭
8	8판 전면 3행 <그림 8-1>	豬遂繩解散去	8판 전면 3행 <그림 8-2>	豬遂繩解散去

고려 팔만대장경 「法苑珠林」의 판각에 관한 연구

번호	비교항목	『법원주림』 권82 초조본(A본)	비교항목	『법원주림』 권82 재조본(A본)
9	9관 후면 19, 20행 〈그림 9-1〉	豪髮已上	9관 후면 19, 20행 〈그림 9-2〉	毫髮已上
10	10관 전면 3행 〈그림 10-1〉	形	10관 전면 3행 〈그림 10-2〉	形
11	10관 전면 6행 〈그림 10-1〉	隨疾投藥	10관 전면 6행 〈그림 10-2〉	隨疾投藥
12	11관 후면 13행 〈그림 11-1〉	充滿匈懷	11관 후면 13행 〈그림 11-2〉	充滿胸懷
13	12관 전면 13행 〈그림 12-1〉	我如象鬪	12관 전면 13행 〈그림 12-2〉	我如象鬪
14	12관 전면 23행 〈그림 12-1〉	自說	12관 전면 23행 〈그림 12-2〉	自說云
15	13관 전면 6행 〈그림 13-1〉	我今當知	13관 전면 6행 〈그림 13-2〉	我今當往
16	14관 전면 12행 〈그림 14 전면 1-1〉	如須今日	14관 전면 12행 〈그림 14 전면 1-2〉	如汝今日
17	14관 후면 간기 〈그림 14 후면 1-1〉	大宋咸平元年(998)奉 勅雕 大師賜紫沙門臣 雲 勝校勘 內品監印經院臣 陣景崇 內侍殿頭高品句 當印經院臣鄭守鈞	14관 후면 간기 〈그림 14 후면 1-2〉	甲辰歲(1244)高麗國分 司大藏都監奉勅雕造

위 <표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법원주림』 권82 초조본(A본)과 재조본(B본)을 대교한 결과, 전체적인 교감 내용을 보면 재조본은 초조본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조본은 초조본의 저본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약간의 교감을 가하고 있다. 종이 수를 각수로 대체하고 간행 시기를 밝힌 것, 글자의 뜻이 맞지 않아 교정하여 새긴 것, 한 글자의 여러 이체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상용되는 이체자로 표기한 것, 뜻이 같은 다른 글자로 바꾼 것, 글자를 추가한 것, 각수의 실수로 잘못 새긴 것 등이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이수를 각수로 대체하고 간행 시기를 밝혔다. no. 1 초조본은 1관 전면 1행에 ‘二十八紙’라 하여 인쇄에 필요한 종이 장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재조본은

그 자리에 각수 ‘인안(仁安)’을 새겨 넣었다. no. 17 초조본 82권 14판 후면에는 ‘大宋咸平元年(998)奉勅雕 大師賜紫沙門臣 雲勝校勘 內品監印經院臣陣景崇 內侍殿頭高品句當印經院臣鄭守鈞’과 같이 송나라의 간기를 그대로 번각하고 있는데 비해 재조본은 고종 31년(1244) 고려 분사도감에서 간행한 ‘甲辰歲(1244) 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의 간기를 새겨 넣었다.

둘째 글자의 뜻이 맞지 않아 교정하여 새긴 것은 5종류가 보인다.

no. 3 초조본 6판 전면 15행의 ‘至天受快樂’이 재조본에서는 ‘生天受快樂’으로 바뀌었는데, ‘至’를 ‘生’으로 교정하여 새긴 것으로 보인다.²³⁾

no. 9 초조본 9판 후면 19, 20행의 ‘자디잔 털만큼의 것이라도’의 뜻인 ‘豪髮已上’을 재조본에서는 ‘毫髮已上’로 ‘豪’를 ‘毫’로 교정하여 판각하였다.

no. 12 초조본의 11판 후면 13행의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의 뜻인 ‘充滿匈懷’이 재조본에서는 ‘充滿胸懷’으로 ‘匈’을 ‘胸’으로 교정하여 판각하였다.

no. 15 초조본 82권 13판 전면 6행의 ‘나는 이제 가서 …하겠다’의 뜻인 ‘我今當知’를 재조본에서는 ‘我今當往’으로 교정하였다.

no. 16 초조본 82권 14판 전면 12행의 ‘그대가 오늘 …한데도’의 뜻인 ‘如須今日’를 재조본에서는 ‘如汝今日’으로 교정하였다.

셋째, 한 글자의 여러 이체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상용되는 이체자로 표기한 것으로는 6종류가 있다.

no. 2 초조본 6판 전면 9행의 ‘刑’이 재조본에서는 ‘刑’으로 표기되었는데, ‘刑’은 ‘刑’의 이체자이다.

no. 4 6판 후면 2행의 ‘形’이 ‘形’으로 교정되었는데, ‘形’의 이체자로는 𠂇, 𠂈, 𠂉이 있는데, ‘形’이 상용되었다.²⁴⁾

no. 6 초조본 7판 후면 4행의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서 바라보았더니’의 뜻인 ‘良久佇望’이 재조본에서는 ‘良久佇望’으로 바뀌었는데, ‘久’를 ‘久’로 정정하여 판각하였다. ‘久’의 이체자는 ‘𠂊’, ‘𠂋’, ‘𠂌’, ‘𠂍’, ‘𠂎’가 있는데, 초조본은 이중

23) 李圭甲 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高麗大藏經研究所, 2000), 60.

24) 李圭甲 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高麗大藏經研究所, 2000), 275.

‘久’가 사용되었다.²⁵⁾

no. 10 초조본의 10판 전면 3행의 ‘形’이 재조본에서는 ‘形’으로 판각되었는데, ‘形’의 이체자로는 形, 𠂔, 𠂔이 있는데, 形이 사용되었다.²⁶⁾

no. 11 10판 전면 6행의 ‘병에 따라 약을 주다’의 뜻인 ‘隨疾授藥’을 재조본에서는 ‘隨疾授藥’으로 교정하여 새겼다. ‘疾’의 이체자로는 疾, 疾, 疾, 疾, 疾이 있는데 이중 疾이 사용되었다.²⁷⁾

no. 13 초조본 12판 전면 13행의 ‘나는 코끼리 싸움터에서 …와 같이’의 뜻인 ‘我如象鬪’는 재조본 13행의 ‘我如象鬪’로 바꾸었다.

넷째, 뜻이 같은 다른 글자로 바꾼 것이 있다. no. 7 초조본 8판 전면 2행의 ‘멧돼지 백여 마리를 몰고 가다’의 뜻인 ‘驅豬百餘頭’와 no. 8 초조본 8판 전면 3행의 ‘멧돼지들은 드디어 줄이 풀리면서 흩어져 도망쳤다’의 뜻인 ‘豬遂繩解散去’가 재조본에서는 ‘驅豬百餘頭’와 ‘豬遂繩解散去’로 바뀌었는데, ‘豬’와 ‘猪’는 모두 돼지 저이다.

다섯째, 글자를 추가한 것이 있는데, no. 14 초조본 12판 전면 23행은 14자이고, 재조본 12판 전면 23행은 ‘自說’ 다음에 ‘云’자를 넣어 15자이다

여섯째, 각수의 실수로 잘못 새긴 것이 있다. no. 5 초조본 7판 후면 4행의 ‘但覩一谷猛火洞然’이 재조본에서는 ‘但覩一合猛火洞然’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은 양의 진안왕(晉安王)이 법총(法聰) 스님을 경공사(景空寺)로 찾아가는데 절 곁에 이르니 ‘다만 한 골짜기에서 불이 활활 타는 것만이 보였으므로’의 뜻이니 ‘谷’을 ‘合’으로 잘못 새긴 것이다.

4.2 「법원주림」 권82 초조본과 재조본의 판각

「법원주림」 권82 초조본(A본)과 재조본(B본)의 판각에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 내역을 각수가 새긴 판별로 정리하고 <그림 1>~<그림 14>를

25) 李圭甲 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高麗大藏經研究所, 2000), 3.

26) 李圭甲 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高麗大藏經研究所, 2000), 275.

27) 李圭甲 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高麗大藏經研究所, 2000), 641.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안(仁安)이 새긴 『법원주립』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1판 전면(<그림 1-1>, <그림 1-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안은 초조본을 충실하게 번각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판각에서 보여지는 글자의 특징이 거의 살아나지 않고 있다.

둘째, 초조본의 ‘人’, ‘大’, ‘不’ 등의 글자의 파임획이 가늘게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갈수록 두툼해지는데 비해 재조본은 가늘고 길게 마무리하였다. 셋째, ‘篇’, ‘第’, ‘持’, ‘心’ 등 종획의 갈고리 획은 초조본이 더 굵고 강한 필선이 나타나고, 재조본은 평이하야 강한 필선의 맛이 살아나지 않는다.

(2) 중현(仲玄)이 새긴 『법원주립』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2판 전면(<그림 2-1>, <그림 2-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현(仲玄)이 새긴 재조본은 번각이 매우 서툴고 초조본의 글자의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왜소하고 치졸한 느낌을 준다. 반면에 초조본은 송본의 번각이지만 글씨가 넓적하고 크며 강한 필획을 사용하여 힘이 있어 보이지만 글씨가 커서 정연한 맛이 없다.

둘째, 두 판본의 글자들 중 ‘入’, ‘是’, ‘捨’, ‘之’ 등의 글자의 파임획을 가늘게 시작해서 끝을 길게 마무리하였고, 재조본은 글자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평이하게 마무리하였다.

셋째, ‘向’, ‘戒’, ‘何’, ‘耶’, ‘第’, ‘偈’ 등의 종획의 갈고리획은 초조본은 매우 굵고 강한 도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재조본은 평이하고 거칠며 도각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거의 없다.

(3) 요진(了眞)이 새긴 『법원주립』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3판 전면(<그림 3-1>, <그림 3-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조본과 재조본은 모두 판각의 새김이 치졸하고 특징이 없다.

둘째, 초조본과 재조본의 판각상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초조본은 3판 전면의 11행이 15자인데, 재조본의 11행은 14자의 판식으로 조정하면서 ‘三智者’ 다음에 있는 ‘不’의 글자를 다음 줄로 옮겼고, 이 때문에 14행까지 글자가 한

글자씩 밀려서 새겨졌다. 반면에 초조본 3판 전면의 17행은 14자인데 재조본의 17행은 15자여서 18행의 ‘持戒’의 ‘持’자가 17행으로 한 글자가 당겨져 있다.

셋째, 초조본은 같은 행에 새긴 글씨가 유난히 큰 글자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형미를 잃고 있는데, 예를 들면, 3판 전면 3행의 ‘又大寶積經’, 7행의 ‘若人善修不放逸行’, 22행의 ‘破壞尙時有’, 23행의 ‘版上座比丘’ 등은 유난히 큰 글자로 새겨져 있다. 이 부분이 재조본에서는 글씨가 비교적 적게 새겨져서 균형미를 잃지 않고 있다.

(4) 윤기(尹基)가 새긴 『법원주립』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4판 전면(<그림 4-1>, <그림 4-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기는 초조본을 충실하게 번각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판각에서 보여지는 글자의 특징이 거의 살아나지 않고 있다.

둘째, 초조본에서는 ‘人’, ‘入’의 글자는 약동하는 자세의 필세로 파임은 시작을 가늘게 하되 마무리는 굵고 예리하게 하였다. 재조본은 시작과 끝이 평이하게 하여 판각의 맛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셋째, 초조본은 ‘見’, ‘覓’, ‘自’ 등의 글자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의 방향이 약간 높은 듯하게 쓰고 빠침은 짧게 파임은 길게 했는데, 재조본에서는 글씨는 반듯하게 쓰고 빠침도 길게 파임도 길게 마무리하였다.

(5) 무창(茂昌)이 새긴 『법원주립』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5판 전면(<그림 5-1>, <그림 5-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창은 우선 초조본의 판각을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조잡한 느낌을 준다.

둘째, ‘今’, ‘尔’, ‘珠’의 등의 글자의 파임 획을 가늘게 시작해서 끝을 굵고 필선이 예리하게 마무리하였는데, 재조본은 글자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평이하게 마무리하였다.

셋째, 초조본의 ‘血’, ‘向’, ‘鵝’, ‘已’, ‘比’ 등의 중획의 갈고리 획은 굵고 필획이 두드러지는데 비해 재조본은 가늘고 필획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6) 성지(成智)가 새긴 『법원주립』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6판 전면(<그림

6-1>, <그림 6-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조본의 ‘終’, ‘各’은 파임이 가늘게 시작하여 굵게 마무리하면서 도각이 예리한데, 재조본은 뭉뚱하게 처리되었다.

둘째, 초조본의 ‘爲’, ‘偈’, ‘我’, ‘身’, ‘手’ 등 종획의 갈고리획은 가늘게 종획을 처리하고 꺾임부분에서 굵게 시작하여 내려오면서 갈고리획을 힘차게 처리하였는데, 재조본의 글자들은 강약이 없고 꺾임 부분과 갈고리획도 거의 평이하게 처리하여 도각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7) 김보(金寶)가 새긴 『법원주림』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7판 후면(<그림 7-1>, <그림 7-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조본의 ‘故’, ‘水’, ‘設’, ‘又’, ‘大’ 등 글자의 파임획이 길고, 굵고, 힘차고, 예리한데 비해 재조본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거의 없이 평이하게 판각되었다.

둘째, 초조본의 ‘乃’, ‘戒’, ‘虬’ 등 종획의 갈고리획은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굵게 처리하거나 꺾임에서는 강약을 조절하여 판각의 맛이 생동하는데, 재조본에서는 수직으로 내려 굵는 선과 꺾임에서 강약의 조절이 없이 평이하게 판각되었다.

(8) 의성(義成)이 새긴 『법원주림』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8판 전면(<그림 8-1>, <그림 8-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조본의 ‘先’, ‘將’, ‘俗’, ‘充’, ‘何’ 등의 글자를 보면, ‘俗’자의 파임이 날렵하고 예리하며, ‘先’과 ‘充’의 글자는 약간 기울여서 쓰고 어진사람인 변(兒)은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종획의 갈고리 획은 꺾여지는 중간부위가 가늘어졌다가 아래의 끝은 삼각을 에워싸듯 마무리하였다.

둘째, ‘將’의 마디촌(寸)은 가로획이 약간 치켜올리듯 하고 세로획은 굵고 힘차게 마무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조본은 글자에 충실한 번각을 하였으나 매우 평이하고 개성이 없이 판각되었다.

(9) 인간(仁幹)이 새긴 『법원주림』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9판 후면(<그림 9-1>, <그림 9-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수 인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조본의 판각에 참여하여 총 88장을 인쇄한 베테랑 각수이다. 따라서 초조본의 저본에 나타나는 자체에 기초

하여 다른 각수에 비해 판각의 새김이 정연하고 깔끔하게 판각되었다.

둘째, 초조본에서는 ‘報恩經’, ‘成論’, ‘遺教經’ 등의 경전의 이름들은 다른 글씨에 비해 굵고 크게 새겨졌는데, 재조본에서는 글씨를 약간 크게 새겼지만,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도록 정연하게 판각하였다.

(10) 수규(守圭)가 새긴 『법원주림』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10판 전면(<그림 10-1>, <그림 10-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수 수규는 초조본의 저본에 충실하게 재조본을 판각하였다.

둘째, 초조본의 ‘已’, ‘可’, ‘所’, ‘不’, ‘向’의 글자들의 파임과 종획의 갈고리획이 굵고 꺾임 부분이 강하고 예리한 반면 재조본은 강약이 없이 평이하게 판각되었다.

(11) 변삼(卞圭)이 새긴 『법원주림』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11판 후면(<그림 11-1>, <그림 11-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조본의 11판 후면 새김은 정연하고 깔끔한데 비해 재조본의 새김은 조잡하고 서툴다.

둘째, 초조본의 ‘取’, ‘水’, ‘足’, ‘今’, ‘本’ 등의 파임은 굵고 도각이 예리한데 비해 재조본의 글자들은 지극히 평이하여 특징이 없다.

(12) 혜연(惠延)이 새긴 『법원주림』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12판 전면(<그림 12-1>, <그림 12-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수 혜연은 초조본에 충실하게 판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판각의 특징은 살아나지 않는다.

둘째, 초조본의 ‘自’, ‘耳’, ‘所’, ‘偈’는 종획과 갈고리획을 굵고 강한 필선으로 나타냈고, 재조본에서는 정연하지 않고 도각의 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13) 법뇌(法雷)가 새긴 『법원주림』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13판 전면(<그림 13-1>, <그림 13-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조본의 ‘舍’, ‘大’, ‘入’, ‘天’의 파임이 가늘게 시작하여 굵고 힘있는 필선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재조본에서는 전체적으로 가늘고 마무리도 필선의 힘이 가해지지 않아 글자의 모양이 평이하다.

둘째, 초조본의 ‘頭’, ‘弗’, ‘打’, ‘莫’은 종획의 갈고리획이 힘있고 굵고 예리하게

도각되었다. 이에 비해 재조본은 꺾임에 힘이 가해지지 않고 강약의 필선이 예리하지 않아 도각의 맛이 드러나지 않는다.

(14) 지해(只每)가 새긴 『법원주림』 82권 초조본과 재조본의 14판 전면(<그림 14-1>, <그림 14-2>)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수 지해는 초조본에 충실하게 판각하려고 했으나 그 특징은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초조본의 ‘之’, ‘又’, ‘令’, ‘人’, ‘今’, ‘念’, ‘令’의 파임이 굵고 힘있고 예리한데 비하여 재조본은 평이하게 도각하였다.

5. 결 론

『법원주림(法苑珠林)』(K.1406) 100권 1,696판을 대상으로 판각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법원주림(法苑珠林)』의 내용 및 구성, 판각 및 규모, 권82의 초조본과 재조본의 교감 및 판각의 순서로 살펴본 결과를 다음과 같다.

1) 『법원주림』은 7세기경 당의 도세가 편집한 100권 100편 668부의 항목으로 구성된 불교대백과사전이다. 편찬체제는 불교유서인 『경율이상(經律異相)』과 『제경요집(諸經要集)』의 분류 방식인 천(天), 지(地), 인(人), 사(事), 물(物)의 주제별 분류 방식의 영향을 받았고, 세부 내용의 분류는 인도의 불교 교리와 중국 불교의식의 체제를 곁들여 17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주림』은 100권으로, 유별 분류체계는 천지(天地), 제왕(帝王), 인사제도(人事制度), 기타 1, 물(物), 기타 2로 나눌 수 있다. 천지류는 1권-7권으로 겁량(劫量)편, 삼계(三界)편, 일월(日月)편, 육도(六道)편이며 우주세계의 형성과 휘멸하는 과정, 불교의 우주관, 우주세계, 천문관 및 지리적 환경 등을 다루고 있다. 제왕류는 8권-21권으로 불교의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제왕에 비유하여 분류한 것이다. 인사제도류는 21권-59권으로 불교도가 지켜야 할 각종 규율과 의식을 인사제도에 비유하여 분류한 것이다. 기타 1은 60권-63권의 주술(呪術)편, 제사(祭祀)편,

점상(占相)편, 기우(祈雨)편으로 진(晉)·당(唐) 사이의 불교의 중국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서 일반 분류체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류는 63권-98권으로 불교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만물과 항목들을 분류한 것이다. 기타 2는 99권-100권 사이의 잡요(雜要)편, 전기(傳記)편이다. 99권의 잡요편은 전법(傳法)과 구법(求法)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포함하였다. 100권의 전기편은 불교의 역사와 불경의 번역사, 번역된 경전의 수와 그 명칭 등에 관한 자료를 서술하였다.

2) 「법원주림」의 초각은 함평 원년(998)에 운승(雲勝) 대사의 교감을 거쳐 인경원에서 간행하였다. 이 경전은 대장경에 편입되지 못하고 장외로 있다가 불교계의 수요에 의해 간행되었기 때문에 송과 요의 여러 석교록에 보이지 않고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권3의 말미인 현성집전(顯聖集傳)의 자료 가운데 들어 있다. 의천은 귀국 후 이듬해 선종 4년(1087)에 초조대장경의 판각이 일단락되자 이듬해에 법원주림을 간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때 추조된 권82가 현재 전존본으로 남아 있다. 재조본은 고종 31년(1244)에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100권 1,696판 3,392면(실제 판각면 3,322면)이 판각되었다. 그중 실제 판각된 면수는 3,322면으로 70면은 인쇄되지 않았다. 대장도감은 총 282판으로 전체의 16.6%를 판각하였다. 반면 분사도감은 총 1,414판으로 전체의 83.3%를 간행하였다. 관련 각수들은 권별로 총 1,579명인데, 동일 각수를 1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602명이 동원되었다. 1,696판 중 각수가 나타나는 것은 1,670판이며, 26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602명의 각수가 1,696판 전체를 판각한 경우로 보면 각수 1인당 2.8판을 새긴 것이 되고, 판각면수(실제 판각 면수)인 3,398면(실제 3,328면)을 가지고 계산하면 1인당 약 5.6면(5.5면)을 새긴 것이 된다. 9판 이상을 담당한 각수는 8명(101판)인데, 희열(希悅)이 26판, 창노(昌老) 14판, 유정(惟正) 12판, 극화(克和) 10판, 덕화(德和) 10판, 득주(得朱) 10판, 최려(崔呂) 10판, 극부(克夫) 9판이다

각수들은 자신의 이름을 음이 같은 다른 글자로 변형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각수 표시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광예(光義, 光裔), 방철(方哲, 邦哲), 보간(宝干, 宝幹), 희적(希積, 希赤) 등이 있다. 출신성분을 알 수 있는 각수들이 각판에 참여

하였는데, 문인지식인, 승려지식인, 하급관료층, 최씨무인정권의 사노, 불교계의 화엄종, 유가종, 선종 사굴산문의 승려들이다. 문인지식인으로는 광조(光照), 득지(得之), 문정(文正)이 있고, 승려지식인으로는 산인(山人)으로 신분표시를 하고 있는 신성(信成)과 귀일(皈一)이 있으며, 하급관료층으로 인간(仁幹)이 판각에 참여하였다. 최씨 정권의 사노(私奴)로서는 김기(金奇)와 장수(長守)가 참여하였다. 불교계의 화엄종, 유가종, 선종 사굴산문의 승려들이 판각에 참여하였는데, 화엄종의 승려는 지일(知一), 종일(宗一), 장존(長存)이고, 유가종의 승려는 대공(大公), 혜영(惠永), 계안(戒安)이며, 선종 사굴산문(閻崛山門)의 승려는 천영(天永), 전일(全一), 수원(守元)이다.

3) 『법원주림』 권82 초조본(A본)과 재조본(B본)을 대교한 결과, 전체적인 교감 내용을 보면 재조본은 초조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재조본은 초조본의 저본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약간의 교감을 가하고 있다. 종이 수를 각수로 대체하고 간행 시기를 밝힌 것, 글자의 뜻이 맞지 않아 교정하여 새긴 것, 한 글자의 여러 이체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상용되는 이체자로 표기한 것, 뜻이 같은 다른 글자로 바꾼 것, 글자를 추가한 것, 각수의 실수로 잘못 새긴 것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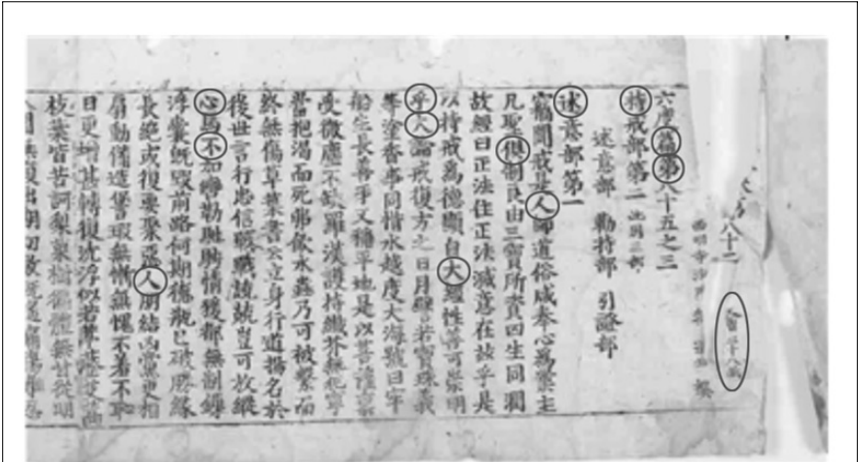
『법원주림』 권82의 판각은 초조본(A본)과 재조본(B본)의 14판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하면, 초조본은 송본의 번각이지만 글씨가 넓적하고 크며 강한 필획을 사용하여 힘이 있어 보이지만 글씨가 커서 정연한 맛이 없다. 재조본은 초조본을 재번각한 것인데 번각이 매우 서툰고 초조본의 글자의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왜소하고 치졸한 느낌을 준다. 그중 베테랑 각수인 인간(仁幹)이 새긴 재조본 9판은 초조본의 저본에 나타나는 자체에 기초하여 다른 각수에 비해 판각의 새김이 정연하고 깔끔하게 판각되었다. 초조본의 ‘入’, ‘是’, ‘捨’, ‘之’ 등의 글자들은 파임획을 가늘게 시작해서 끝을 길게 마무리하였고, 재조본에서는 글자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평이하게 마무리되었다. ‘向’, ‘戒’, ‘何’, ‘耶’, ‘第’, ‘偈’ 등의 중획의 갈고리획의 경우 초조본은 매우 굵고 강한 도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재조본은 평이하고 거칠며 도각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거의 없다. 초조본은 서명이나 이름은 새긴 글씨가 유난히 큰 글자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형미를 잃고 있는데 비해 재조본에서는 글씨가 비교적 적게 새겨져서 균형미를 잃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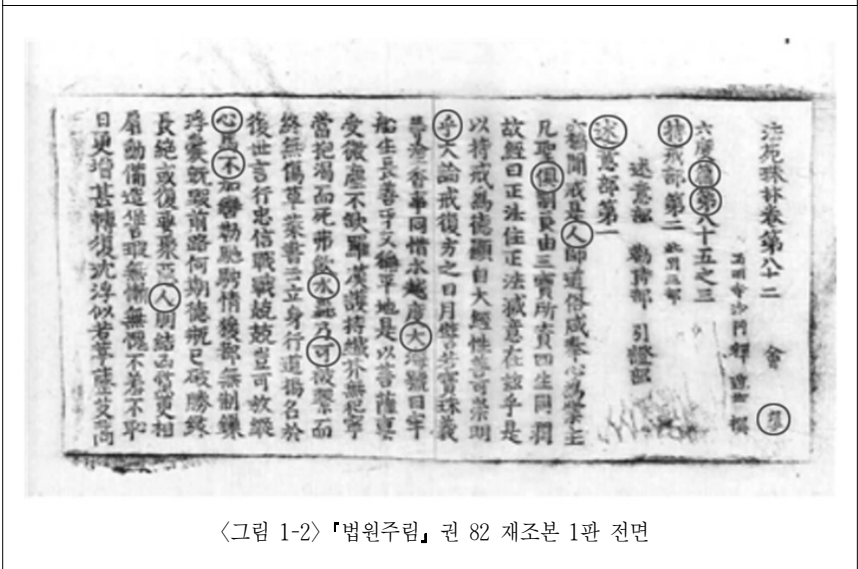
<참고문헌>

- 강순애.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 및 제경판의 디지털화와 대중화.”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제22권 1호(2011).
- 강순애.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6(2010).
- 姜順愛. “고려 팔만대장경 『유가사지론』의 판각과 봉안에 관한 사례 연구.” 『소통과
인문학』 제10집(2010).
- 郭東和. “고려 팔만대장경 『阿毘達磨大毘婆沙論』 판각에 관한 사례 연구.” 『서지
학연구』 46(2010).
- 金潤坤. “『고려대장경』의 각판과 국자감시 출신.” 『國史館論叢』 46(1993).
- 安正燾. “『法苑珠林』敍事結構研究 論文提要.” 『中國小說研究會報』 제57호(2004).
- 安正燾. “『法苑珠林』敍事結構研究.” 박사학위논문. 復旦大學 中文系. 2003.
- 李圭甲 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 高麗大藏經研究所, 2000.
- 千惠鳳. “초조대장경.” 『호림박물관 1011-2011 천년의 기다림』. 호림박물관, 2011.
-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 景仁文化社, 2006.
-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각성사업에 대한 근대 100년의 연구사 쟁점.”
『석담논총』 44(2009).
-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 경전의 구성체계와 참여자의
출신성분』. 景仁文化社, 2009.
- 한글대장경 『法苑珠林』. 東國譯經院, 1985. 1권-5권.
- 許興植. “<安養社飯子>.” 『韓國金石全文』(中世下). 아세아문화사, 1984.

<부록> 그림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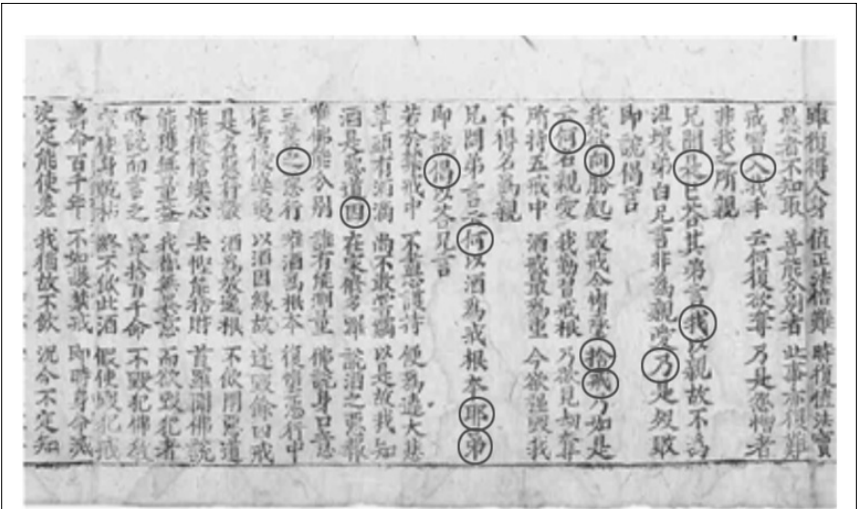


<그림 1-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1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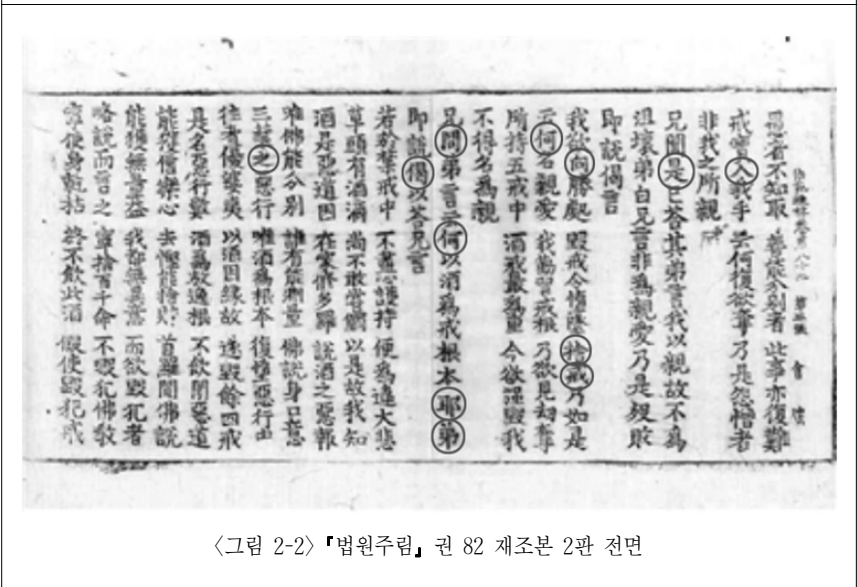


<그림 1-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1판 전면

<그림 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1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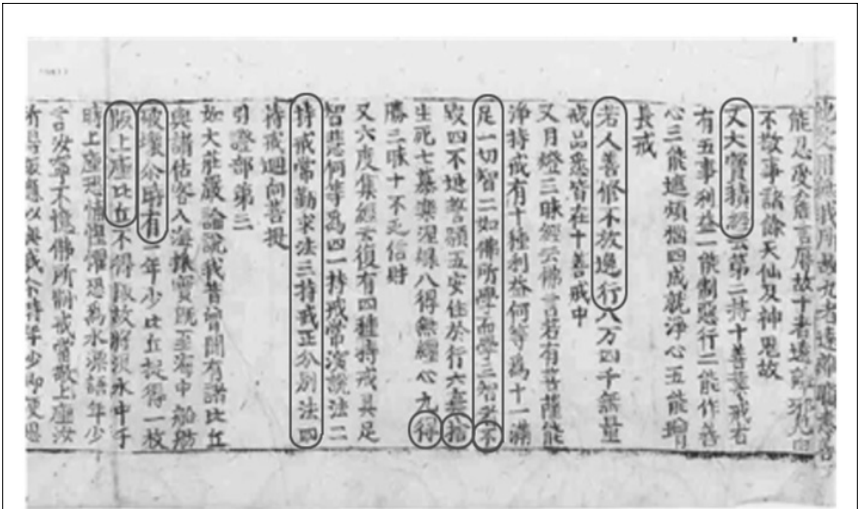


<그림 2-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2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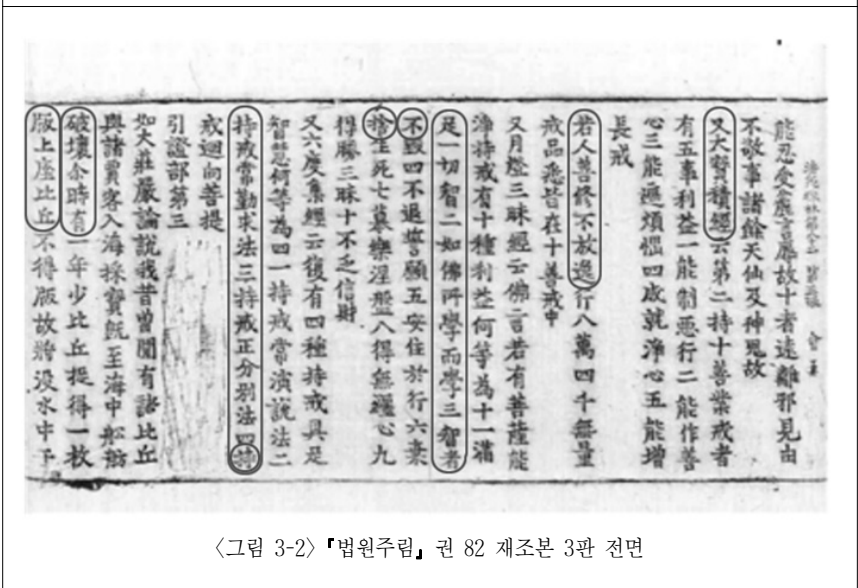


<그림 2-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2판 전면

<그림 2>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2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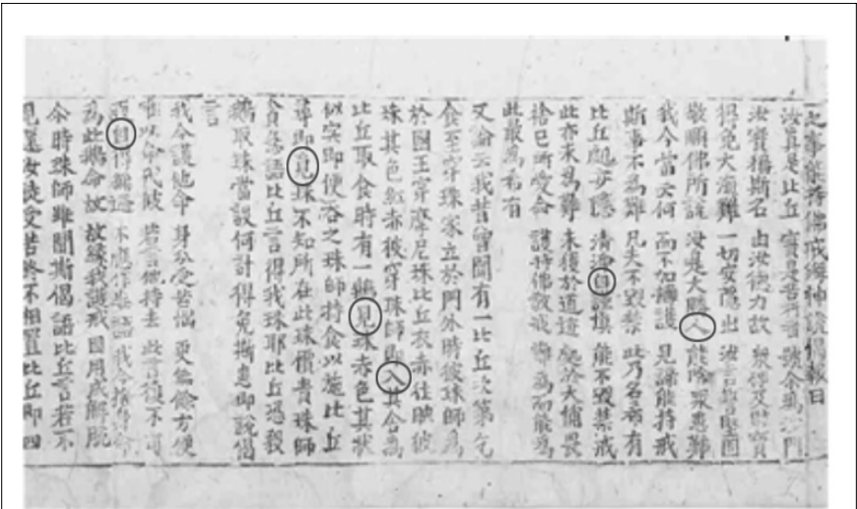


<그림 3-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3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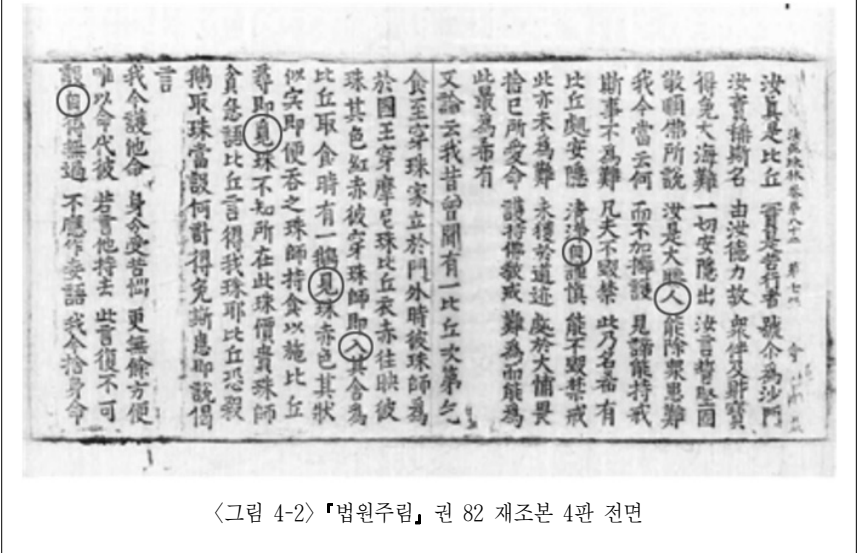


<그림 3-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3판 전면

<그림 3>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3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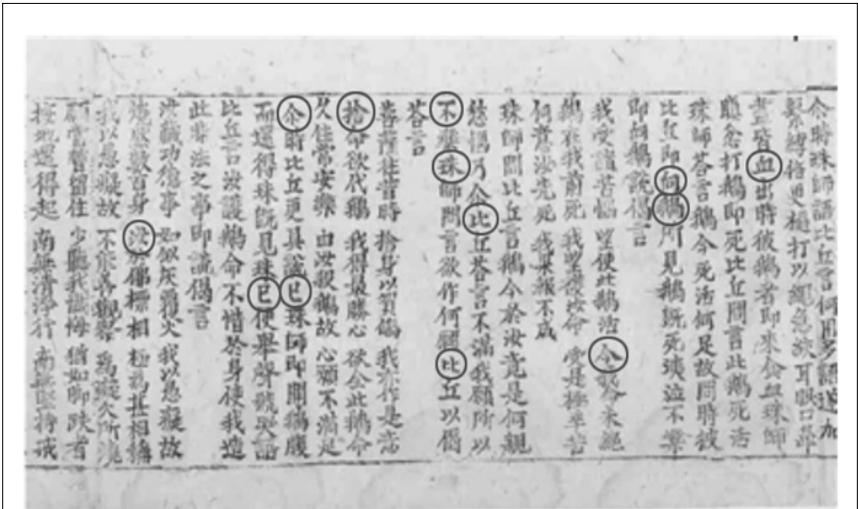


<그림 4-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4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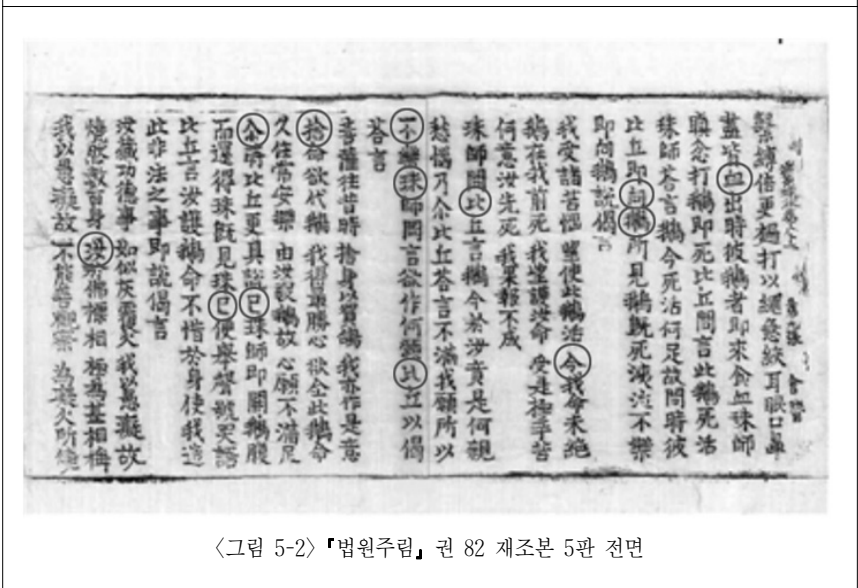


<그림 4-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4판 전면

<그림 4>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4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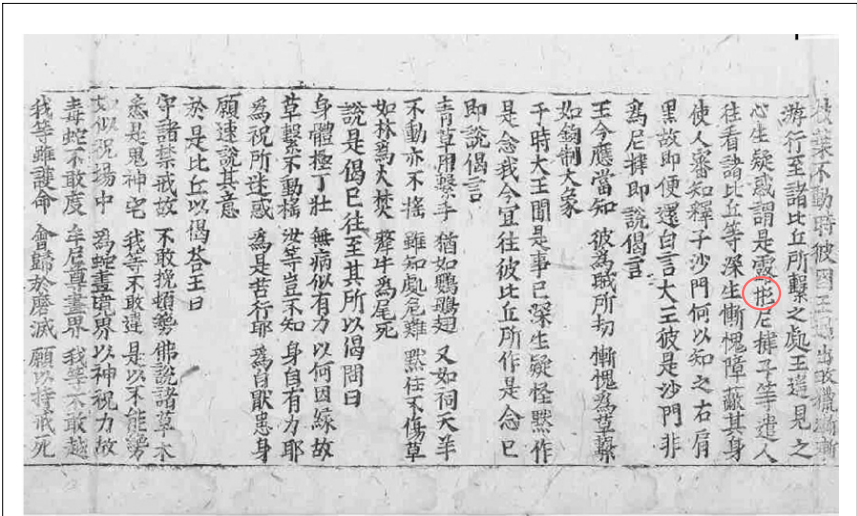


<그림 5-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5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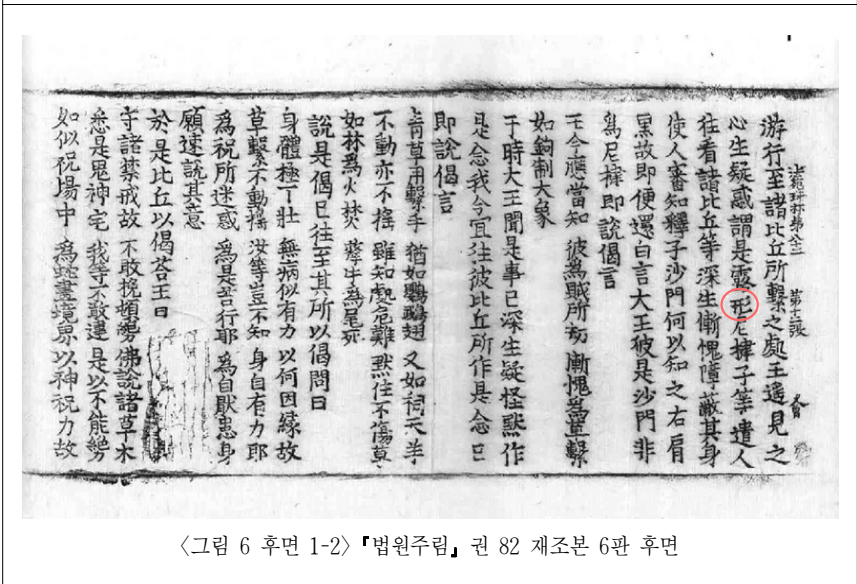


<그림 5-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5판 전면

<그림 5>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5판 전면



<그림 6 후면 1-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6판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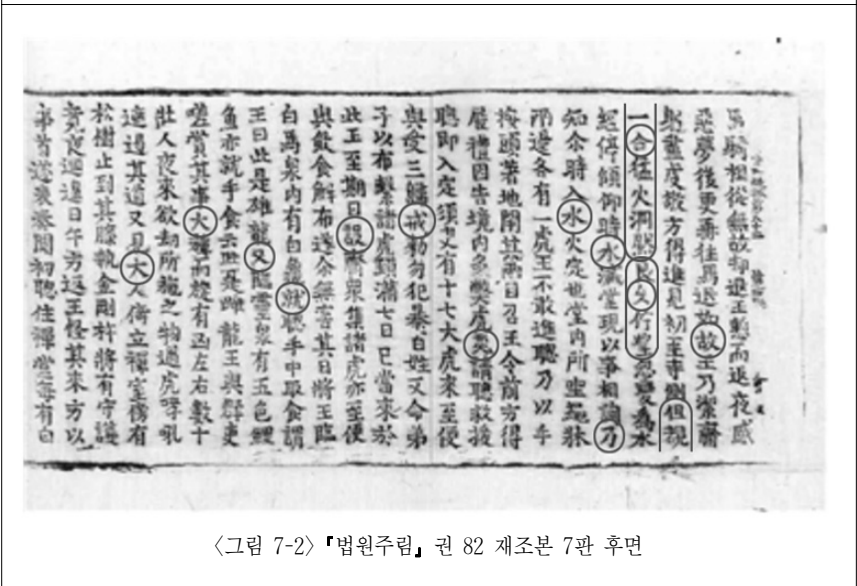


<그림 6 후면 1-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6판 후면

<그림 6 후면>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6판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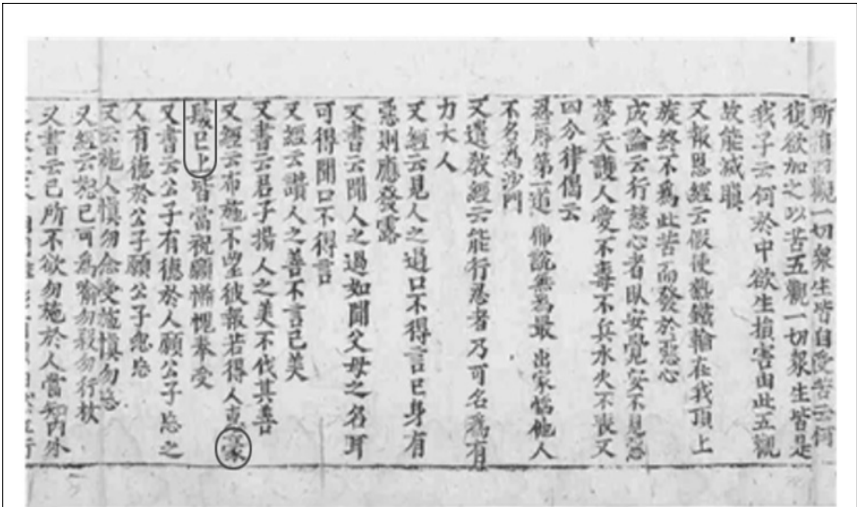


<그림 7-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7판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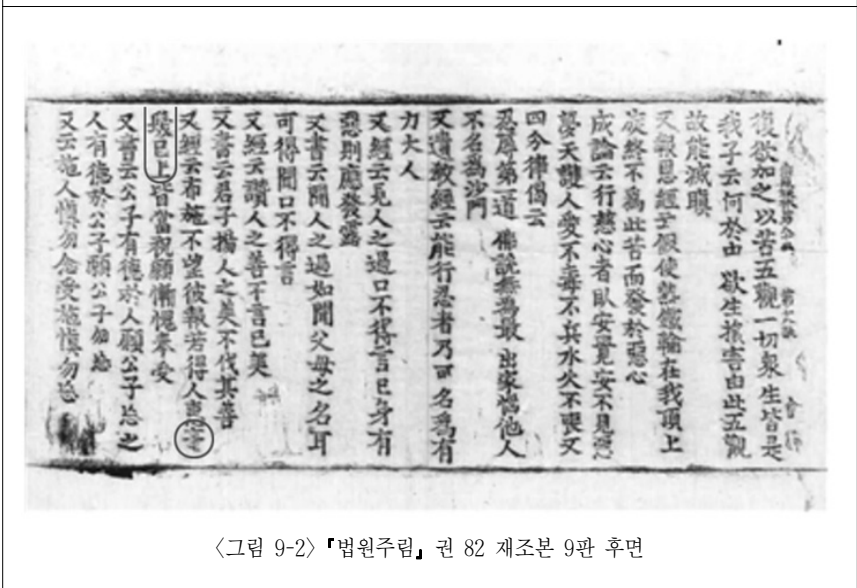


<그림 7-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7판 후면

<그림 7>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7판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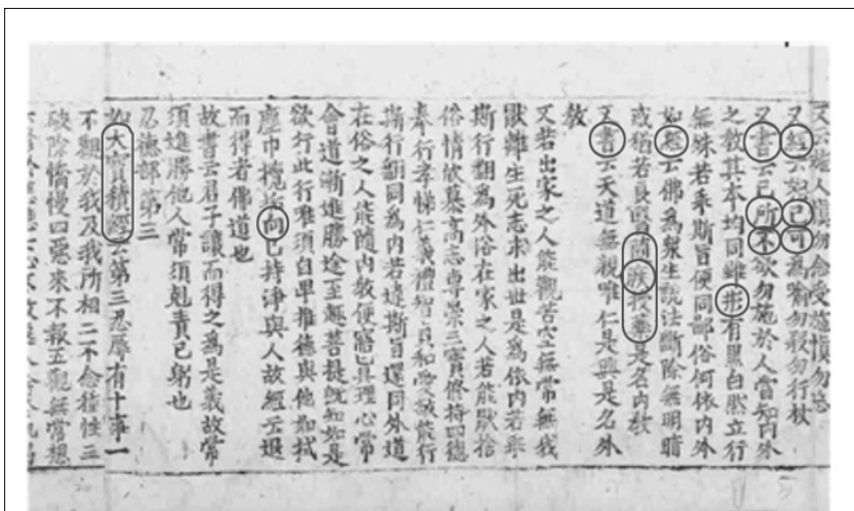


<그림 9-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9판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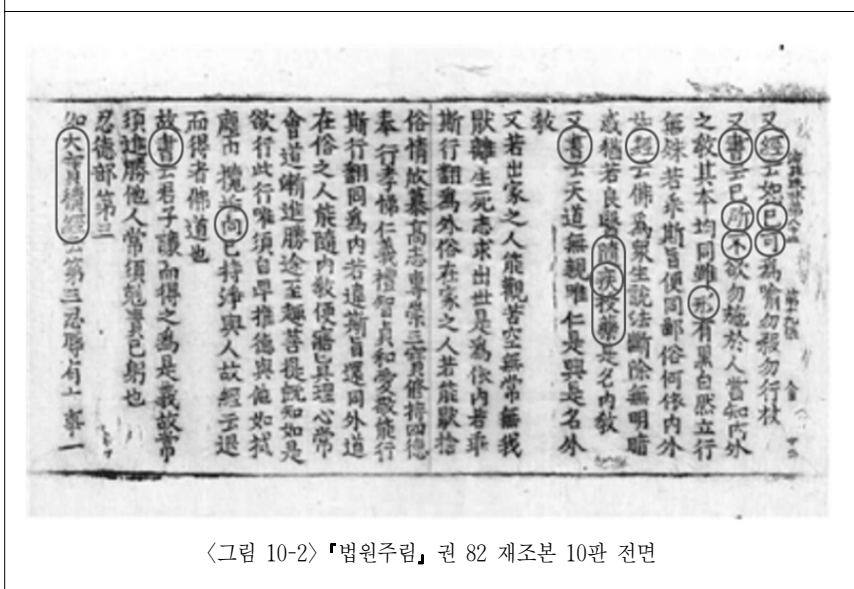


<그림 9-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9판 후면

<그림 9>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9판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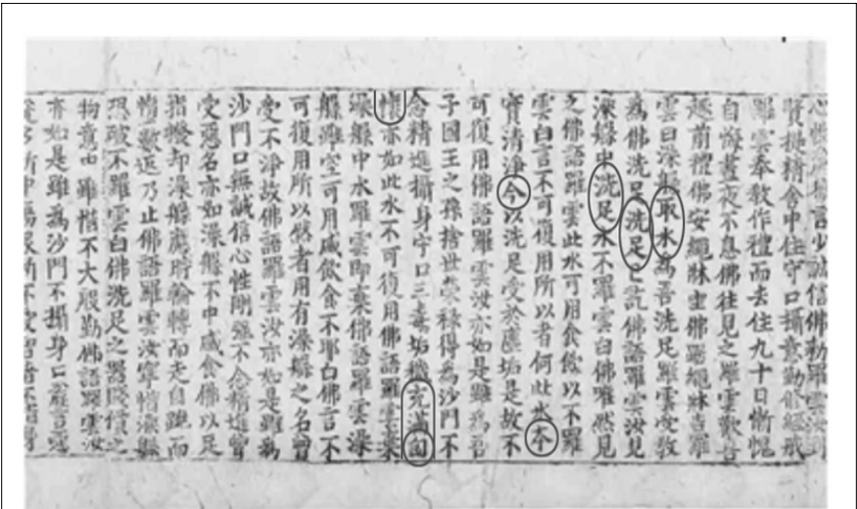


<그림 10-1> 「법원주립」 권 82 초조본 10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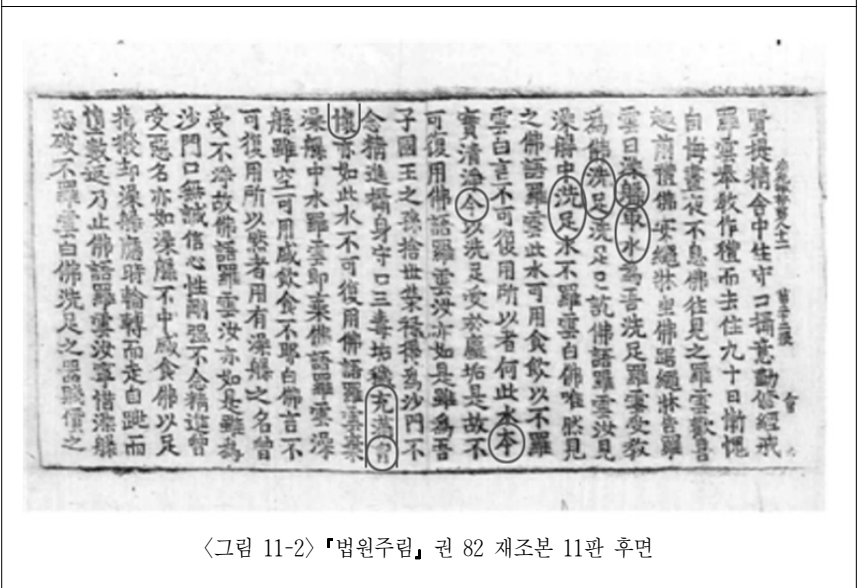


<그림 10-2> 「법원주립」 권 82 재조본 10판 전면

<그림 10> 「법원주립」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10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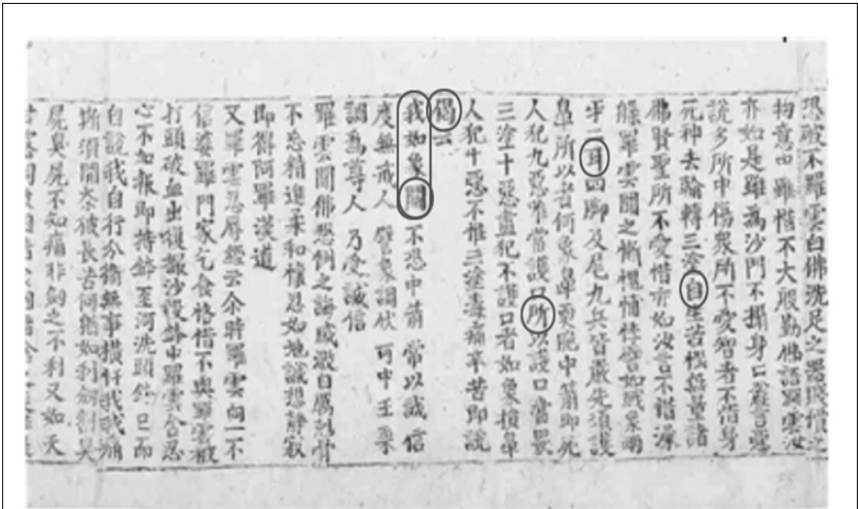


〈그림 11-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11권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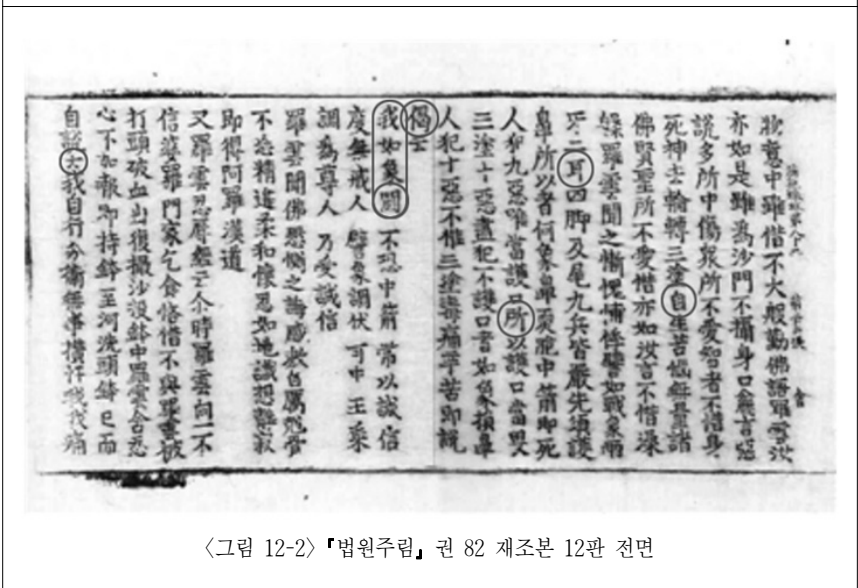


〈그림 11-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11권 후면

〈그림 1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11권 후면



<그림 12-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12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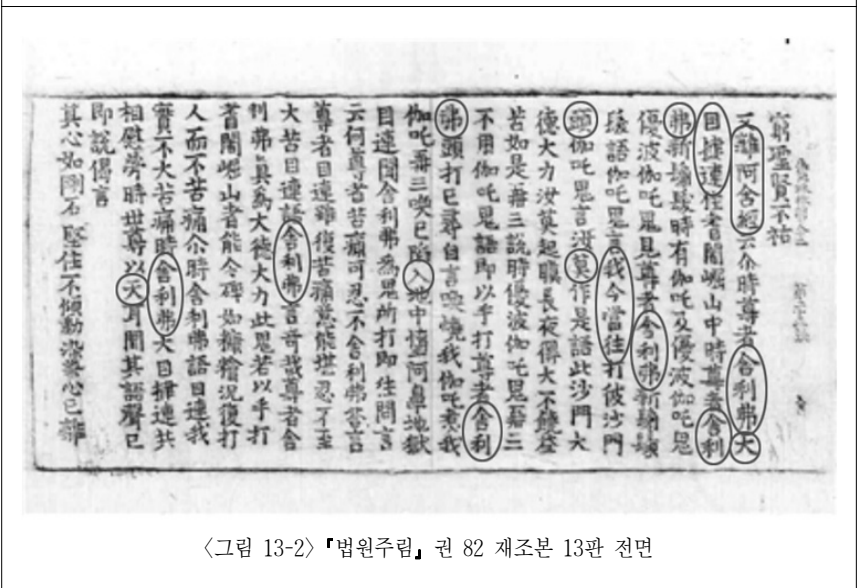


<그림 12-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12판 전면

<그림 12>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12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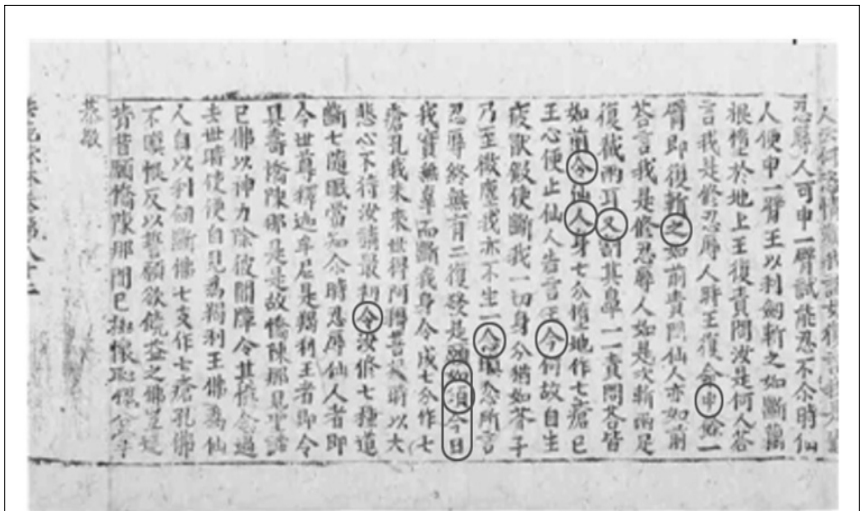


<그림 13-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13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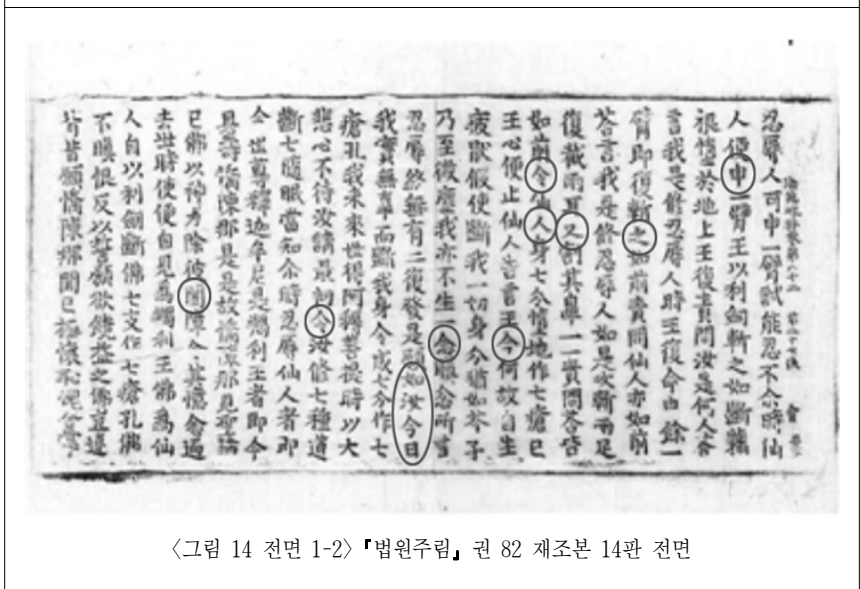


<그림 13-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13판 전면

<그림 13>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13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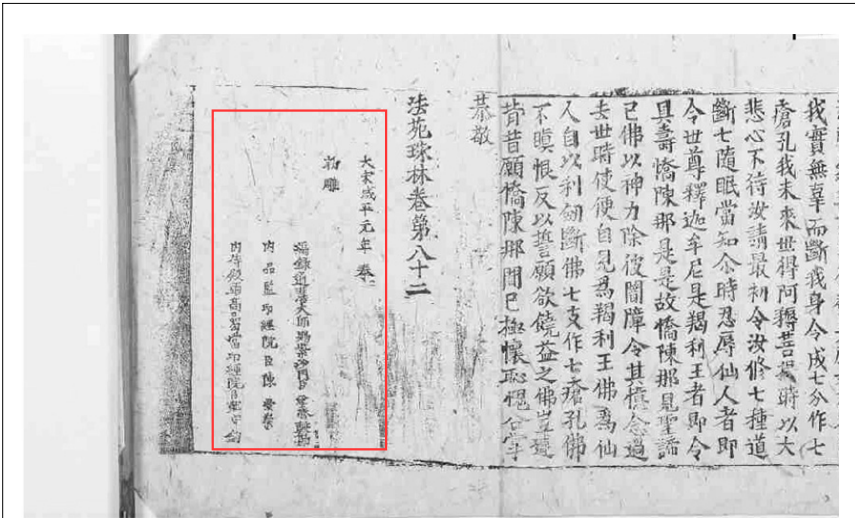


〈그림 14 전면 1-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14판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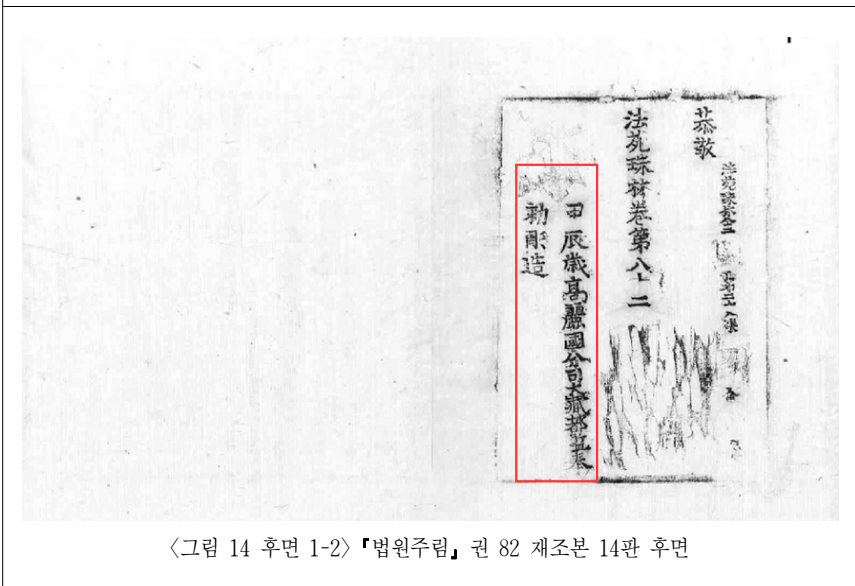


〈그림 14 전면 1-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14판 전면

〈그림 14 전면〉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14판 전면



〈그림 14 후면 1-1〉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 14판 후면



〈그림 14 후면 1-2〉 「법원주림」 권 82 재조본 14판 후면

〈그림 14 후면〉 「법원주림」 권 82 초조본과 재조본 14판 후면

